

02 2026 vol.622

만남



교회표어

복음의 능력으로
충추는 교회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 세상에서 하나님공의의 실현

5대 본질



2월 목회력

- 01 주일 ·찬양예배 성찬
- 01 주일 ~ 06 금 ·포이메네스 목회자 영성수련
- 06 금 ·자녀와 함께하는 가정축복 특별기도회
- 07 토 ·영락가족 특별새벽기도회
- 08 주일 ·제직회
- 13 금 ·자녀와 함께하는 가정축복 특별기도회
- 15 주일 ·상담부 공개강좌, 심방준비회
- 18 수 ·재의 수요일
- 20 금 ·자녀와 함께하는 가정축복 특별기도회
- 22 주일 ·사순절 첫째 주일, 사회봉사주일
- 26 목 ·신임권사 영성수련회
- 28 토 ·아동부 봄맞이성경학교

CONTENTS



14

이달의 말씀

- 02 신선한 샬러드처럼 _ 김운성

특집

- 05 영락 이음 _ 탁현수

특별기고

- 07 이단 신천지 구별법 _ 권남규

만남 그리고 사람들

- 10 파이낸셜뉴스 미디어그룹 전재호 회장 인터뷰 _ 김성문
- 14 영락 카타콤 비밀을 아십니까? _ 인 미

다음세대 / 청년광장

- 16 학교 기도 모임 '에클레시아'로 초대합니다 _ 송윤영
- 18 사랑부 연극 '주님이 사랑하신 교회' _ 류혜선
- 22 두려움을 넘어선 도전에서 찾아온 희망의 빛 _ 이은영



25

- 24 복음의 능력으로 찬양하는 영고찬 _ 이영덕
- 25 다시 간 태국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손길 _ 한수빈

땅끝까지 이르러

- 28 복음으로 춤추는 군선교 _ 선교부
- 30 미술문화 선교의 새 길을 열다 _ 위영혜

영락 글로벌

- 32 사회환경의 변화와 영락교회 국제예배의 비전 _ 조준호
- 35 사도행전의 길 위에서 다시 묻다 _ 제자양육훈련부

영락의 울타리

- 38 평범함을 들고 약속의 자리로 _ 신주현
- 40 '놀라운 상담자'를 따라 걷는 2년 _ 김연수
- 42 제자양육과정, 당신의 특권을 누리세요 _ 이순호
- 44 서로의 삶과 믿음을 채워가는 '재움' _ 김천경
- 47 사회봉사부 연말나눔 _ 조명철



35

- 48 풍성한 식탁 앞, 건강도 함께 시작 _ 권오란
- 50 영락기독교미술세미나 빈센트 반 고흐 _ 서성록

교회소식

- 54 영락시어터 2월 상영 영화 _ 문화선교
- 55 2025 전 세대가 함께하는 성탄예배 외
- 60 <성전의 박사들 사이의 예수> _ 이은혜
- 61 새아기·새가정

신선한 켈리드처럼



김운성 담임목사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사십 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출애굽기 16:35)

땅끝교회에서 목회할 때, 매달의 주일 낮 설교를 묶어서 『창고이야기』라는 이름으로 설교 소책자를 발간했습니다. 한 권에 네 편이나 다섯 편의 설교가 실렸는데, 컬러 인쇄로 제법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비용은 성도들이 돌아가며 헌신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인터넷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쇄 매체가 유용했습니다. 종합병원이나 시청 같은 관공서, 붐비는 지하철역 등에 비치하면 사람들이 가져가서 읽었고, 특히 입원 환자들이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르헨티나에서 장문의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를 보낸 분은 한 연로하신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를 여행하던 한국인을 통해 『창고이야기』를 받았다면, 보내줄 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기쁨으로 두 달 분씩 묶어서 보냈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도착이 늦다는 것이었습니다. 11월, 12월 설교가 2월이

나 되어야 도착하는 셈입니다. 책에는 추수감사절, 성탄절 설교가 있는데, 이미 그곳에서는 사순절이 가까우니, 뒤늦은 배달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생생한 맛이 덜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배 실황을 동시 송출해도 현장과 영상이 차이가 있는데, 몇 달씩 늦으면 어색함이 더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감칠맛 나던 굴도 오래되어 수분이 마르고 쭈글쭈글해지면 맛이 덜합니다. 막 지은 밥과 보온 밥솥에 오래 있던 밥은 다릅니다. 은혜도 그렇습니다. 은혜도 신선해야 합니다. 묵은 은혜는 신선도가 떨어집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던 만나가 이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계속 이동해야 했기에 농사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먹거리가 문제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십 년 동안 만나를 주

셨습니다. 때때로 메추라기도 주셔서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만나는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광주리를 가지고 아침마다 나아가서 만나를 담아왔습니다. 그때도 탐욕을 품는 사람이 있어서, 여러 날 먹기 위해 많은 만나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이면 벌레가 생겨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다음 날에도 만나를 주실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만나가 내리지 않는 날은 오직 안식일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위해 그 전날 이틀분의 만나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거둔 만나는 벌레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만나는 매일 거두어야 했습니다.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신선한 만나를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매일 임하길 원합니다.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읽어보면 굶직하고 특별한 사건들이 여럿 나옵니다. 예를 들어 홍해를 건넌 일, 마라의 쓴 물이 달게 된 일, 아말렉을 이긴 일, 십계명을 비롯한 말씀을 받은 일 등 많은 일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백성은 이런 일들은 오래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나는 어땠을까요? 만나는 매일 내렸기에 당연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만나에 대한 감사를 잊었을 것입니다. 마치 밖에서 먹은 외식은 오래 기억하면서도 어머니가 매일 차려주시는 밥상에는 감사를 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자라게 하고 살게 한 것은 어머니의 매일의 밥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매일 내렸던 만나

감사함을 잊은 당연했던 일상

놀라운 은혜가 아닌

만나 같은 은혜를 사모해야

평범해 보이는 매일의 은혜...

쌓이면 영적 승리

백성을 사십 년 동안 살게 한 것은 매일 주신 만나였습니다.

우리도 매일의 만나 같은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오래전에 체험한 커다랗고 놀라운 은혜만 기억하지 말고, 일상에서 내려주시는 잔잔한 은혜를 누리야 합니다. 십 년 전에 온갖 좋은 재료로 만든 비싼 음식이 있다고 해 보세요. 그걸 먹을 수 있을까요? 평범해 보여도 오늘 아침에 차린 음식이어야 합니다.

작은 눈 알갱이들이 쌓여서 큰 눈이 됩니다. 나뭇가지는 작은 눈 알갱이가 몇 개 더 쌓이는 순간 부러집니다. 매일 먹는 은혜, 아침저녁으로 읽는 말씀, 틈틈이 드리는 기도, 교회에서 드리는 많은 공적 예배, 새벽기도회와 금요기도회, 성도들과 은혜를 나누는 소그룹, 작은 봉사들과 선교지를 위한 기도와 헌신, 이런 것들이 쌓여 영적 승리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누가 “잘 지내세요?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라고 묻거든, “매일 기쁘고 감사합니다!”라고 담담히 대답하며 미소 짓는 삶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런 삶이야말로 애독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 한 해가 이런 삶으로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만남**

특집

“개척 교회처럼, 한 사람을 잇는 교회”



교회가 빛나는 순간은
많은 사람을 모을 때가 아니라
이름 없는 한 사람을 붙들 때입니다.

2026년,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교회'를 꿈꾸며
영락교회는 개척 교회처럼
처음 사랑으로 새가족을 맞이합니다.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흩어지지 않게
교구와 구역, 지회와 소그룹이
따뜻한 '이음'의 자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새가족을 명단이 아닌
얼굴과 이야기를 가진 이웃으로 기억하며
한 사람을 공동체로 잇는 교회.

'영락 이음'을 통해
복음의 능력으로 삶이 이어지고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 안에서 춤추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락 이음



새 길을 여는 이름, '영락 이음'

'영락 이음'? 많은 성도님께서 이게 무슨 말인가 궁금하실 겁니다. '영락 이음'은 올해, 목양부와 소그룹전담부, 그리고 18개 교구에서 새롭게 진행하려는 사역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영락 이음'이 어떤 사역인가 궁금하실 텐데, '이음'이라는 단어 안에 이 사역의 핵심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음'은 '잇다'의 명사형 단어로 대상을 다른 대상과 잇고, 공동체로 잇는 사역의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해 붙인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역을 통해 우리가 이르려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영락교회에 등록된 새가족 성도님들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영락 이음'은 새가족 성도님들께서 18개 교구 안에 신앙의 뿌리를 든든히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사역입니다.

매년 500명, 그러나 쉽게 정착하지 못하는 새가족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는 새가족이 매년 500여 분 계십니다. 이렇듯 매년 많은 새가족께서 새가족부를 통해 4주간의 등록 교육을 받아 등록하시고, 그중 일부 새가족은 몇 개월간의 정착반을 거치며 교회에 적응하는 기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새가족부를 통해 등록된 새가족 성도님들께서

새가족부를 수료하신 이후 각 지역 중심의 교구와 구역에 배치된 뒤에는 정착 잘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새가족 정착을 돕는 사역

이에 작년 정책 당회에서 논의하고 정기 당회에서 결의하여, 목양부와 소그룹전담부를 중심으로 18개 교구에서 새가족들의 교구와 구역 및 지회 정착을 돕는 사역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새가족부를 통해 교회에 등록된 새가족 성도님들께서 궁극적으로는 각 교구에 소속감을 느끼시고, 교구 교역자와 구역장을 통해 목회적 돌봄을 받으시고, 구역 모임이나 지회 모임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더 나아가 교회 내 제직 부서 안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봉사과 활동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사역을 계획하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탁현수 목사
중구·용산교구
목양부

장로님들까지 나선 새가족 소그룹 동행

‘영락 이음’ 사역의 목표는 그 이름 그대로 교회에 등록하신 새가족 성도님들을 교구 공동체로 잘 이어 드리고, 교구에서는 그 새가족 성도님들을 잘 품어 구역과 지회 공동체로 잘 모일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교구별로 3~4명 정도의 지원자들께서 새가족을 섬기기 위한 소그룹 리더 교육을 받고 계십니다. 새가족들이 소그룹을 통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며, 자신의 삶을 나눌 수 있도록 소그룹에 대한 6주간의 리더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별한 것은 금번 교육에 18개 교구에서 총 63명이 참여하셨는데, 그중에 시무장로님들과 은퇴장로님들도 동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새가족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영락교회 장로님 하면 아무래도 멀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락 이음’을 통해 장로님들께서 새가족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터인데, 이는 우리 교회에 매우 의미 있는 사역적 변화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멀리서만 보던 장로님들을 가까이 만나게 되면 영락교회가 한결 포근하고 정겹게 느껴지지 않을까 합니다.

3월, 새가족 소그룹이 교구에서 피어날 예정

사역 일정을 소개해 드리자면, 현재 1~2월에 6주간의 소그룹 리더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3월 첫 주일 오전 11시부터 교구 중심의 새가족 소그룹 모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영락 이음’에 오시는 새가족께서는 총 8주간 교구 교역자 및 리더들과의 소그룹 나눔 시간을 가지게 되며, 마지막 7, 8주 차에는 앞으로 함께하실 구역장님

과 지회장님(또는 지회 임원)을 만나 자연스럽게 구역과 지회로 연결해 드리게 될 것입니다.

개척 교회 마음으로 한 영혼을 끝까지 잇다

2026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교회’입니다. 동시에 담임목사님께서 마치 개척 교회가 된 심정으로 나아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개척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개척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교회입니다. 교회에 새로 등록한 한 영혼을 위해 목사나 전도사, 장로, 집사, 권사 할 것 없이 발 벗고 나서는 교회가 개척 교회입니다. 소망하기는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영락 이음’ 사역을 통해 영락교회에 오신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오기를 정말 잘했다고 느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될 때, 각 교구마다 구역과 지회마다 제직 부서와 찬양대 등 교회의 크고 작은 모임들과 공동체마다, 새가족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미소를 더 많이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남**



이단 신천지 구별법(요한일서 4:1)

- 교회 안으로 침투하는 미혹의 구조와 분별 기준



권남계 목사
부산이음교회(통합) 담임
총회이단전문상담사
전 신천지 요한지파 금천교회담임강사
이음상담소 유튜브 운영



1. 문제 제기 - 왜 신천지 대응은 '사건'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인가?

코로나19 이후 신천지의 외형적 활동은 감소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조직의 약화가 아니라 전술적 전환에 가깝다. 공개 포교와 대규모 집회가 제약되자, 신천지는 이미 교회 내부에 침투해 있던 인적 자원을 중심으로 장기 침투 전략을 재가동했다. 최근 여러 교회에서 반복적으로 보고되는 유사한 징후들은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구조화된 전략의 결과로 이해해야 한다.

신천지는 태생적으로 교회 외부(비신자)보다 내부(신자)를 추수의 핵심 공간과 대상으로 설정해 왔다. 이는 신천지가 가지고 있는 교리적인 문제, 곧 정통 교회를 추수의 대상(추수 밭)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또한 교회의 신뢰 구조, 관계, 직분 제도가 신천지 포교에 최적화된 환경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천지 추수꾼 문제는 특정 인물의 일탈이나 단발적 사건이 아니라, 교회가 구조적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언제든 재현될 수 있는 상시적 위험 요소다.

II. 신천지 침투의 구조적 원리 - 위장, 시간, 그리고 부인 전략
 신천지 침투의 1차 원리는 위장이다. 추수꾼으로 파견된 신천지인은 처음부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다. 오히려 순종적인 신앙인, 열심 있는 봉사자, 관계 친화적인 교인으로 자신을 연출한다. 그러나 이들의 열심은 말씀의 내면화나 교회 질서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핵심 관심은 관계 선점과 영향력 확보에 있다. 신천지 교리에 세뇌된 추수꾼의 특징은 빼어난 연기력과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2차 원리는 시간이다. 신천지는 단기간의 성과를 기대하지 않는다. 일정 기간 교회 문화에 적응하며 신뢰를 축적한 뒤, 점진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한다. 이 과정에서 새가족 등록 시 신앙 이력을 최소화하고, 예배와 양육 참여는 느슨하게 유지하면서 인간관계 형성에는 과도할 정도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3차 원리는 부인과 전환이다. 중요한 특징은, 신천지인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더라도 끝까지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교회가 자신을 부당하게 의심하고 박해한다고 주장한다는 점이다. 이후 논점은 ‘이단 여부’에서 ‘교회의 절차·권위·명예훼손·인권 문제’로 전환되며, 그 과정에서 교회 내부에 분란이 촉발된다.

III. 직분·헌금·충성의 왜곡 구조

신천지는 교회 내 직분을 신앙적 섬김의 결과가 아니라, 전략적 거점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충분한 양육과 검증은 거치지 않았음에도 임원, 소그룹 리더, 향존직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인다. 직분을 맡은 이후에도 예배와 모임 참여는 불성실하지만, 직분 자체는 쉽게 내려놓지 않는다.

헌금 생활 역시 중요한 분석 지표다. 다수 사례에서 신천지인은 교회 헌금, 특히 십일조에 구조적으로 소극적이다. 이는 개인의 신앙 성향 문제가 아니라, 이미 신천지 조직에 재정적·심리적 충성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질의 흐름은 신앙의 방향성을 드러내는 객관적 지표다.

IV. 관계 침투 전략과 은밀한 포교 경로

신천지 침투에서 가장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양상은 과도하게 빠른 친밀감 형성이다. 교회 내 공식 모임보다 교회 외 개인적 만남을 선호하며, 식사, 카페, 전시회, 취미 활동 등을 매개로 접촉 빈도를 높인다. 이 과정에서 정서적 지지, 공감, 선물 제공 등을 통해 신뢰를 강화하고, 개인의 고민과 관심사, 상처와 같은 취약 지점을 체계적으로 파악한다.

특히 ‘잘 아는 선교사’, ‘말씀을 깊이 아는 분’을 소개하겠다는 외부 성경 공부나 소규모 모임, 이른바 3자 만





남을 제안하는 경우는 신천지 포교 프로세스의 전형적인 분기점이다. 이는 반드시 즉각 보고·차단·점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V. 분란 유도과 교회 규모별 접근 전략

신천지는 교회의 규모에 따라 접근 방식을 달리한다.

개척 교회나 소형 교회에는 MOU·MOA 등 협력 관계, 사역 연계, 문화·교육 프로그램 제안을 통해 우호적으로 접근한다. 반면 중·대형 교회에는 협력보다 내부 분열과 리더십 불신 조장이라는 전략을 선택한다.

이 과정에서 목회자에 대한 재정·사생활·리더십 관련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확산한다. 일정 시간이 지나 핵심 직분을 확보하면, 불만 세력을 조직화하여 교회를 분규 상태로 몰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전개 방식이다.

VI. 소그룹에서 드러나는 교리적 이상 징후

소그룹은 신천지 침투의 핵심 무대다. 예언과 비유 해석의 과잉, 요한계시록의 구원 필수화, 교회 공교육과 단절된 용어 사용은 즉각적인 점검이 요구되는 신호다. 소그룹은 신앙 성숙을 위한 장이지, 비공개 교리 실험실이 아니다.

VII. 교회가 갖추어야 할 대응 체계

1단계: 예방 구조

새가족 신앙 이력 점검 시스템
정기적 이단 예방 교육
소그룹 리더 분별 훈련

2단계: 감지 구조

개인 접촉·외부 모임 제안 보고 체계
비공식 소문 발생 시 즉각적 사실 확인

3단계: 대응 구조

개인 판단 배제, 공동체·리더십 중심 대응
절차·기록·증거 기반 처리

4단계: 회복 구조

탈 신천지인을 위한 검증된 회복 코스
무비판적 수용도, 무조건적 배척도 배제
사랑 안의 분별 원칙 확립

VIII. 결론 - 분별은 배척이 아니라 교회의 책임이다

이단 분별의 목적은 정죄가 아니다.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보호하며, 미혹된 영혼을 다시 복음으로 돌이키는 데 있다. 두려움이 아니라 깨어 있음, 혐오가 아니라 분별, 방관이 아니라 구조적 준비로 대응할 때 교회는 신천지의 반복되는 침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신천지 문제는 특정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는 한 계속되는 영적 전투의 한 형태다. 준비된 교회만이 공동체를 지킬 수 있다. **만남**

돈의 논리 대신 복음의 길을 택하다 경제신문과 간증 잡지로 증언하는 ‘하나님의 경영’

편집장
인터뷰

파이낸셜뉴스 미디어그룹 전재호 회장

위기의 신문을 떠안은 언론사 회장, 폐간 직전의 간증 잡지를 끝까지 붙든 경영인, 그리고 손주들에게 성경을 필사해 남긴 한 할아버지. 세상은 그를 ‘성공한 사주’라 부르지만, 전재호 회장은 자신의 길을 ‘파이낸셜뉴스와 가이드포스트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오래 준비시키신 여정’이라 고백한다. 영락으로 인도하신 처음 사랑부터, 네 단계의 약속과 대물림 신앙의 꿈까지, 영락교회 은퇴장로서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들어보았다.

만남 사람 편집장 김성문 안수집사



파이낸셜뉴스 살리려 오래 준비시키신 주님

전재호 회장의 첫 직장은 대한항공이었다. 15년 동안 운송과 전산, 해외 지점까지 두루 거친 뒤 항공사가 아닌 국민일보로 옮겼고, 지금 돌아보면 그 선택 뒤에 “주님의 은밀한 뜻이 있었다.”고 고백한다.

국민일보에서도 그는 15년 동안 비서실·총무·광고·공무·전산 등 모든 부서를 돌았다. 2000년 계열 경제지 파이낸셜뉴스 창간을 “기자가 없다.”고 반대했지만, 신문은 창간되었고 곧 자본 잠식과 월 수익 원 적자에 빠졌다. 인수 제안을 받고 금식기도까지 했으나 분명한 응답은 듣지 못한 채, 그는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인수를 결단했다.

인수 후 재무 상태를 보니 회생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다. 그때 국민일보에서의 15년이 떠올랐다. 그 기간 동안 맡았던 업무들이 바로 이 위기를 위한 훈련이었다. 구조조정, 인쇄 부수 감축, 광고 영업 보강 끝에 1년 만에

파이낸셜뉴스가 '비록 작지만 강한 신문'으로 다시 서기 시작했을 때, 그는 "지나고 보니, 주님이 오래 준비시키신 줄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돈보다 사람, 실적보다 사랑을 먼저 두는 신문사

전재호 회장은 자신을 이해하려면 파이낸셜뉴스의 사훈부터 보라고 말한다. '모나지 않은 정론, 기업과 함께 성장, 그리스도 사랑 구현.' 경제지에 어울리는 앞의 두 구절 뒤에 '그리스도 사랑'을 넣기까지 내부 반발이 있었지만, 그는 '우리가 끝까지 붙들 가치 사랑'이라 밀어붙였다.

이 사훈은 실제 운영의 기준이 되었다. 파이낸셜뉴스는 창간 이후 'FN 가족 찾기 캠페인'을 매주 실시하며 실종 가족을 찾는 일을 이어 왔다. 그는 "가족을 잃어버린 이들의 아픔을 언론이 조금이라도 덜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의 실천"이라고 말한다. 각종 포럼과 세미나를 기획할 때도 "정론에 맞는가, 기업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해치지 않는가?"를 묻는다.

기독교자선 단체 광고를 매일 무상 게재하는 것 역시 사훈으로 고백한 '그리스도 사랑 구현'을 지면에서 실천하는 방식이다. 채용도 필기시험 대신 합숙 면접을 통해 인성과 태도를 먼저 본다. 그는 "글은 나중에 연습해도 된다."며, 경제신문이라 해도 사람과 사랑을 우선하는 기준이 자신이 택한 답이라고 말한다.

"결혼하려면 교회 나가야 한다" 아내 요구에 등록한 영락

1975년 결혼을 앞두고 "결혼하려면 교회 나가야 한다."는 아내의 말에 영락교회에 등록하며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 처음 영락교회로 왔다.



손주들을 위해 전재호 회장이 3년 동안 필사한 어린이 영어 성경

그는 장모의 권면 덕분에 바쁜 중에도 영락교회와의 끈을 놓지 않았다. 여러 부서에서 봉사하고 장로로 세움을 받았으며, 제1남선교회 회장을 맡게 되었을 때 "이제야 진짜 영락 식구가 되었다."고 고백한다.

제1남선교회 회장,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의 통로

전재호 회장은 사회 속 크리스천 리더들과 함께한 시간이 자신의 신앙과 사역에 큰 자산이 되었다고 말한다. 크리스천 최고경영자 과정과 여러 기도 모임을 통해 각계 리더들과 교제하며, 언론인이자 신앙인으로서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 왔다.

이 경험은 영락교회 제1남선교회 회장 시절에 열매를 맺었다. 그는 사회 각 영역의 크리스천 리더들을 초청해 신앙과 삶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고, 회원들은 평소 접하기 어려운 이들의 간증과 도전을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었다. 전재호 회장은 자신을 다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를 이어 주는 통로였을 뿐"이라며 그 공을 하나님께 돌린다.

3년 성경 필사, 손주들에게 남긴 믿음의 유산

외부 신앙 활동을 정리한 뒤, 전재호 회장은 "이제는 가



가이드포스트 창간 60주년 기념 감사예배

정과 영락교회를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때부터 자녀와 손주들의 신앙지도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있다.

지금은 아들·딸 부부와 손자·손녀, 온 가족이 함께 영락교회에 오는 것이 큰 기쁨이다. 오래전부터 ‘대물림 신앙’을 부러워하며, 자신의 가정도 그런 가문이 되기를 소망해 왔다. 그 마음으로 손주들을 위해 어린이 영어 성경을 손으로 필사했다. 새벽마다 3년 동안 써 내려간 그 성경책을 손주들은 아직 잘 모르지만, 부모들은 눈물로 기억하는 신앙의 유산이다.

소명으로 붙든 간증 잡지, 영락에서 드린 60주년 감사예배

전재호 회장이 가이드포스트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창간자 노먼 빈센트 필 목사의 정신이다.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라.”, “삶이 고달플 때 눈물로 밥을 먹는 심정을 이해하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이 세 문장을 붙들고 경영난에 빠진 한국판 가이드포스트 인수를 결단했다. 이 잡지를 “불의 많은 세상에서 주님의 의와 사랑을 깨달은 이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고백하는 지면”이라고 정의한다.

한국판 가이드포스트는 매달 상당한 부수를 발행하며, 그중 대부분을 교정기관·군부대·복지시설·미자립 교회 등에 무상으로 보낸다. 재소자들의 편지와 전화로

단련의 시기가 끝나던 해에 이철신 목사님을 모시고 드린 파이낸셜뉴스 창간 12주년 기념 조찬기도회



전해지는 간증은 “이 잡지는 꼭 살아 있어야 한다.”는 확신을 새롭게 한다. 그가 가이드포스트를 붙드는 이유는 여전히 ‘긍정적인 사고의 힘’과 복음 안에서 나누는 간증에 있다. 영락교회 드림홀에서 드린 창간 60주년 감사예배는 소명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였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새기신 네 단계의 약속

전재호 회장은 파이낸셜뉴스와 가이드포스트 인수를 ‘정상적인 회사 인수’라고 부르지 않는다. 두 매체 모두 폐간을 앞둔 상태였기 때문이다. 도저히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일이 나에게 주어진 기적 같은 은혜이자 사명일 수 있다.’는 부담을 품게 되었다.

2003년 파이낸셜뉴스 경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던 어느 날, 금식기도 중 마음에 새겨진 ‘네 번의 단계별 약속’이 다시 떠올랐다. ‘단련의 때, 완성의 때, 영광 받으실 때, 평안과 안식을 주실 때’였다. 그는 매달 업무일지 첫 장에 이 네 문구를 적어 놓았다.

첫 번째 10년은 노조 갈등과 수사·재판을 견뎌야 했던 ‘단련의 때’였고, 무죄 판결과 함께 회사는 정상 궤도에 올랐다. 두 번째 10년은 경영이 안정되고 제도권 언론으로 자리 잡으며 신사옥과 사업 확장, 동역 기자들의 임원 승진을 통해 열매를 거두게 하신 ‘완성의 때’였다. 지금은 세 번째 ‘영광 받으실 때’ 중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 네 단계를 정리하며 후손들에게 네 가지를 당부한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기도로 ‘단련의 때’를 견딜 것, ‘완성의 때’를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교만을 멀리할 것,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사모하며 기도 후에는 행동할 것, 마지막으로 구원의 확신을 붙들고 영원한 ‘평안과 안식의 때’를 소망하며 살아가길.

영락 성도에게 권하는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여덟 덕목

전재호 회장은 영락교회 월간지 『만남』의 역할과 소명을 높이 평가한다. 『만남』의 알찬 내용이 영락 안팎 성

도들에게 큰 감동을 준다고 말하며, 다른 교회 친구들에게도 일부러 몇 부씩 나누어 영락교회가 품은 복음의 이야기를 전해 왔다.

2024년 영락교회에서 진행된 ‘기자학교’는 이런 마음이 구체적인 섬김으로 이어진 사례였다. 그는 파이낸셜뉴스 기자들을 강사로 보내 강의와 실습을 맡겼고, 이를 ‘하나님께서 파이낸셜뉴스에 주신 사명’ 가운데 하나로 본다.

일흔여덟을 맞은 그는 베드로후서 1장 5~7절 말씀을 자주 묵상한다.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그는 이 구절에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모든 덕목이 다 담겨 있다고 믿으며, 이 말씀을 ‘남은 생을 정리해 가는 기준’으로 붙들고 싶다고 고백한다. 그리고 『만남』과 영락의 성도들도 이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걸어가기를 기도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만남**



인터뷰 때 만난 『가이드포스트』 박세정 편집장(좌측), 전재호 회장, 『만남』 김성문 편집장



‘카타콤’

교회 마당에 들어서서 무심코 지나다 보면 유난히 눈에 띄는 간판이 있다.

본당에서 교회 마당으로 내려오는 계단 옆, 늘 무심히 굳게 닫힌 쇠창살 문 사이로 안에 어두운 동굴 같은 미로가 연결된 듯하다.

카타콤(catacomb)은 원래 지하 무덤으로 특히 로마 초기에 그리스도교도의 공동묘지로, 박해 때에는 예배 장소로 사용했던 곳이다.

일제 시대 방공호에서 성찬주를 품는 공간으로

영락교회 카타콤은 일찍이 일제시대 방공호로도 쓰였다고 전해지는 가운데, 현재 그 안에는 성찬예배에 쓰일 포도주가 담긴 향아리 수십 개가 보관돼 있다. 언뜻 와이너리를 연상케 하는 카타콤, 그 안에 매년 담근 포도주가 3년 숙성을 거쳐 성찬에 올라오게 된다. 마치 믿음의 숙성돼 구주로 고백하듯 이를 기념하며 마시는 예수 보혈의 상징, 성찬주를 품고 있는 곳이다.

성찬은 본당예배 기준으로 1년에 12번, 즉 주일 낮예배 대성찬은 2번(1월, 10월), 저녁 찬양예배에 드려지는 성찬은 10번이다. 1부에서 5부예배까지 전체 성찬 시에는 약 1만 명분, 저녁 찬양예배 시에는 약 1,200명 분이 준비된다. 포도주와 더불어 전병이 함께 준비된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성찬팀의 소명

그러면 이러한 준비는 누가 하는 것일까? 바로 예배부에 속한 성찬팀(팀장 유형숙 권사), 그 안엔 포도주팀과 다리미팀이 있다. 성찬팀은 불과 20여 명, 목사님과 기존 멤버들의 추천으로 이뤄진다. 그중엔 무려 24년간 이 일을 담당해 온 박정숙 권사(고양·파주교구)도 있다. 포도주 담그는 일은 매년 9~10월 가을에 이뤄진다. 미리 예약된 극상품의 캠벨포도가 교회에 도착하면, 향아리를 세척하고 포도주를 담그기까지 약 한 달이 소요된다. 현재 구매하는 포도 양은 약 120상자, 현재는 영월에서 특별 관리된 포도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 교회에

서 성찬주 담그기가 언제부터였는지 정확하지는 않다. 대략 70~80년대부터 시작했을 것이라 추측한다.

37년간 이어진 이름없는 헌금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놀라운 사실은 무려 20년간 이름 없이 포도 비용을 헌금한 분이 있다. 주인공은 바로故 정혜옥 은퇴권사(2023년 소천)다. 남편은 아동 문학가로 유명한故 박경중 은퇴집사님으로 권사님 역시 약 500여 편의 동요 작곡가이기도 하다. 은퇴 후 충남 공주요양원 시설의 노인복지를 위해 10억 기부도 하셨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권사님 소천 후 자녀들이 그 후로도 무려 17년간 이를 이어오다 작년에 처음으로 교회에서 포도를 구매했다는 점이다. 무려 37년간을 한 분과 그 자녀들이 이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일을 계속해 왔다는 것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일을 아는 이가 거의 없다는 것.

이런 게 바로 오늘날 영락교회를 가능케 한 저력이 아니었을까? 가슴이 한켠 몽클해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가 하면 재미난 에피소드도 없지 않다. 한 번은 교회 마당에서 성탄 포도주를 옮기다 교회 마당에 쏟아지는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사방에서 벌떼가 몰려드는 바람에 소동이 벌어져 결국 소방차가 출동하기도 했다.

사명과 현실 사이, 절대 공간 부족의 애로
불과 20여 명의 적은 인원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성찬팀, 보람과 사명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한편 어려운 점도 적지 않다.

턱없이 부족한 공간이 가장 큰 고

민이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성찬을 위한 공간이 딱히 없다는 점이다. 보관부터 세정-작업대 공간 등 성찬 준비를 위한 공간이 없어서, 현금계수실과 찬양대 준비실, 그리고 식당에 나눠 성찬 용기를 보관하고 설거지하는 형편이 아쉽기만 하다. 성찬 당일에는 직접 옮겨서 사용하고, 세척 후 멀리 떨어진 장소로 나눠 정리하면 거의 저녁 9시.

그뿐인가? 카타콤 역시 언뜻 와이너리처럼 포도주 보관에 완벽해 보이지만, 내부 사정은 그렇지 않다. 환기와 통풍이 잘 안 되고 매년 습도가 높아지면서 현재 배전 등에 위험성이 높아 전문가들의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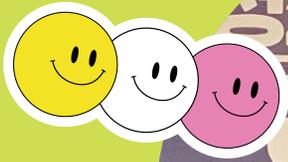
항아리마다 신앙이 익어가는 곳, 영락 카타콤

믿음이 숙성돼 구주로 고백하듯, 주님을 영접한 뒤, 이를 기념하고 마시는 성찬주를 품고 있는 곳인 카타콤. 그런 의미에서 영락 카타콤의 비밀인 항아리마다 ‘맛’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우리의 신앙이 익어가는 곳, 카타콤의 비밀은 우리가 느껴야 하는 거룩한 부담이 아닐까? **만남**

취재 인 미 기자



학교 기도 모임 '에클레시아'로 초대합니다



취재 승윤영 기자

영등포구에 위치한 여의도고등학교에서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점심시간에 기도 모임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오부터 약 30분간 진행되는 이 모임은 월요일에는 QT 형식으로 말씀 묵상과 기도를, 목요일에는 찬양과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서로 다른 교회에 다니지만,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담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 11월, 기독교청소년문화 페스티벌 주제토론포발표대회에 유일한 일반 공립고로서 참가해 '경건한 한 사람의 부흥'을 발표한 소감도 함께 소개합니다.

육지성 (영락교회 고등부)

1학년 때부터 학교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기도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은 큰 위로와 도전이 되었고, 순간순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쉬고 싶은 시간에도 함께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모습은 늘 감사하게 다가옵니다. 이 모임은 우리의 노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개최되는 주제토론표대표대회에 기도 모임을 소개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스포츠 행정가라는 진로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에클레시아를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정은교 (여의도침례교회 고등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기도 모임을 알게 되었고, 지금은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모임을 이끌며 기도는 제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힘이라는 것을 느꼈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진정한 사랑과 우정이 가능하다는 것도 경험하며, 학교생활도 더 따뜻하고 의미 있게 바뀌었습니다. 친구의 추천으로 '마지막 때를 이겨낼 힘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모토를 붙잡고 기독교소년대회에 참여했습니다. 대회를 통해 하나님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에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세상은 점점 신앙에서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은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믿음과 소명을 가지고 목회자 또는 소방관이라는 진로를 통해 사람을 살리는 사람, 사회 속에서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구윤환 (서빙고온누리교회 고등부)

중학교 시절 기도 모임을 만들며 혼자서는 믿음을 지키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저는,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가 많아질수록 학교 안에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 믿으며, 에클레시아 모임에 기쁨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 서로의 연약함을 발견하지만, 기도로 함께 일어서는 공동체의 힘을 경험하며 동역자의 진정한 의미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친구들과 함께 기독교소년대회를 준비하며 대한민국 부흥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명을 느꼈을 뿐 아니라, 그 과정 자체가 잊지 못할 믿음의 훈련이 되었습니다. 저는 복음 이 막힌 나라에 자유를 전하고자 미군 장교라는 진로를 꿈꾸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영향력 있는 리더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만남**



영락교회 창립 80주년 기념 연극 ‘주님이 사랑하신 교회’



류혜선 권사
관악·동작·금천교구
사랑부

사랑부에서는 1년에 보통 4월 부활절과 11월 추수감사절에 연극예배를 드립니다. 늦어도 9월부터는 연극 연습을 시작하기 때문에, 7월과 8월은 마음이 조금 바빠집니다. 특히 지난 2025년은 우리 교회가 80주년을 맞이한 해이므로 조금 특별한 연극예배를 올려 드리고 싶습니다. 7월 어느 날, 한경직기념도서관에서 『영락교회 50년사』를 대출하여 집에서 메모하면서 읽었습니다. 사랑부가 지난해 창립 27주년을 맞이했으므로, 혹시 50년사의 끝부분에서 사랑부 탄생의 흔적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50년사에서 건져 올린 '복덩이' 이야기

아무래도 『영락교회 50년사』는 교회의 역사를 사실대로 기록한 책이다 보니 재미있는 이야기는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회의마다 기록된, 얼굴을 모르는 많은 신앙의 선배님의 이름을 보면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저의 이름도 이렇게 선명히 기록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부 친구들과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역사를 쉽게 공부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고, 또 부서에서 소박하게 드릴 예배이기에 너무 심각하거나 많은 이야기를 넣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신앙의 순교자 김응락 장로님의 이야기, 한경직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총회무진 힘차게 사역하실 때를 상상하면서 한두 장면을 나타내 보고 싶었으며, 앞으로 계속 이어질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이야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1945년 공산당으로부터의 피난길에 태어난 해방둥이 '복덩이'가 생겨났고, 그 복덩이는 80년이 지난 현재, 손자를 목사님으로 키워낸 믿음의 가정의 어른으로서 우리 교회를 지켜내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작은 역할까지 귀한 부르심이 되는 무대

연극 연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오래 손발을 맞춰온 사랑부 교사들이 사랑부 형제자매들과 함께 연극을 만들어 갑니다. 학생들은 맡은 역할을 위해 열심히 대사를 외웁니다. 한 장면이라도 꼭 참여하고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학생들을 위해 엑스트라 배역도 하나씩 더 만들어 갑니다. 그렇게 1945년 서울 남대문 시장의 생선 장수, 기름 장수 역할도 만들어

졌습니다. 대사도 없는 그 작은 역할을 위해서 몇 시간이고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귀하게 사용하여 주십니다. 연극 연습 기간에 한 자매가 긴급한 수술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자매가 다치기도 하여 급히 배역을 바꿔야 할 때가 생기기도 합니다.

선생님들은 울동 지도, 식사와 간식 준비, 소품 만들기, 의상 빌리기, 음악 선정, 무대 장식, 현수막 제작, 마이크 연결, 홍보물 제작, 장비 빌리기, 장소 섭외 등 시간을 다투며 분장합니다. 여러 과정마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아이디어와 물자와 재료와 결과물이 모이고 만들어지고 다듬어지는데, 지나고 보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아래 아름답고도 순조롭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부에서 경로원까지, 두 번 올려 퍼진 은혜의 연극예배

교회의 창립기념주일보다 한 주일 앞선 11월 30일, 떨리는 마음으로 오전에 사랑부에서 연극예배를 올려 드리고, 오후에는 하남시에 가서 영락경로원 어르신 앞에서 한 번 더 연극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르신들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우리의 마음도 덩달아 기쁘고, 2025년에도 연극을 할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연극이 끝난 후, 짐을 줄이고자 소품을 좀 부수었습니다. 그때 한 권사님이 “양코르 공연이 들어오면 어찌려고 소품을 부수냐?”라고 하셔서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우리가 연극하는 모습을 찍은 동영상에 대사 자막을 넣어 제작하여 사랑부에서 다시 보며 서로 즐거워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연극 동영상은 아는 분들께 보여 드리기도 했는데,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소감이 전해지는 가운데, 어느 날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수요 2부예배 때 한 번 더 사랑부의 연극 공연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워낙 무대에 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랑부 친구들은 물론, 사랑부 학부모님들도 모두 기뻐했습니다. 부수었던 무대 장치와 소품을 열른 다시 만들어 준비하고, 반납했던 한복을 다시 대여하는 등 즐겁게 준비하던 중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주인공 격인 한 사랑부 형제가 평일 공연은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담임선생님과 전 담임선생님까지 연락드려 공연의 취지를 알려 드렸으나 허락을 받지 못한 우리는 모두 망연자실하여 재공연을 취소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기로에 섰습니다.

눈물의 문자와 기도, 다시 세워 주신 무대 위의 자리

‘이럴 리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사랑부 연극 공연이 가로막히다니? 이럴 리가 없는데. 우리가 무엇을 놓쳤으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하기를 원하시는 걸까?’ 고민했습니다. 그 형제의 어머니께서는 아예 선생님과 제 전화도 받지 않으셨고, 장로님과의 통화도 원치 않으셨습니다.

장애가 있는 50대 자식의 노후를 고민해 오신 그 형제의 부모님은, 천주교재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작업장과 그룹홈에 아들을 위탁하신 상태였습니다. 보증금 성격의 큰 금액을 미리 냈고, 또 다달이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규칙과 질서를 잘 지켜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그곳에 잘 정착하기를 바라는 사정 때문에, 평일 특히 수요일 미사가 있는 날에 다른 활동을 시키는 것이 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



랑부 형제가 평일에는 천주교인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에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우리가 품어야 하는데, 천주교에 맡기게 되는구나.’

저는 울며 씨를 뿌리는 심정이 되어 그 형제의 어머니께 장문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형제와 제가 동갑이기 때문에 2년 전에 하늘나라로 가신 저의 어머니를 생각하며 글을 쓰고 있으며,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일보다 더한, 자식을 위한 투자는 없을 것이라고, 이 연극예배를 통해 형제님이 어떻게 쓰임 받고 하나님이 사랑부를 위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른다고, 사랑부의 다른 노령의 학생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오래 기도하고 있노라고 간곡히 말씀드렸습니다. 문자를 보낸 직후 학생의 담임선생님뿐 아니라 연극부 선생님들 모두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후에도 약간의 해프닝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무대 위에 세워 주셨습니다! 사랑부에서 차편을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폐 끼칠 수 없다며 아버지께서 직접 차에 태워 오고 데려가셨습니다.

**부모 떠난 뒤를 걱정하는 사랑부,
더 간절해진 기도의 제목**

사랑부 형제자매들 중 최고령 자매님은 69세, 이번 연극에 참여한 최고령 형제님은 59세입니다. 또 구순의 연세에도 장애 아들을 챙겨 주일마다 예배에 오시는 어머니들이 계십니다. 지난 10월 갑작스레 하늘나라로 가신 어머니가 남기신 아들은 경남 산청에 있는 장애인 센터로 가게 되어 우리와 이별했습니다. 부모님이 소천하시고 홀로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형제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부 형제자매들이 부모님의 사후에 어떻게 생활하게 될까에 대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쉽게 진행될 것만 같았던 수요 2부예배 연극 앙코르 공연이 어려운 과정을 거쳤던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더욱 간절히 기도하라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에게 맡겨 주신 연약한 형제자매들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소박한 연극 뒤에 숨은 눈물,
80주년을 밝힌 감사의 고백**

지난 겨울 영락교회 80주년을 소박한 연극을 통해 나타낼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따뜻했습니다. 연극 이면에 있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소망으로 견뎌내는 사랑부를 위해 꼭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모든 성도님의 가정에 함께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만남**

두려움을 넘어선 도전에서 찾아온 희망의 빛



이은영
고등부 3학년



미래에 대한 막막함에 찾아온 희망의 빛

고등부에 첫발을 내디뎠을 때 찬양 소리가 너무 귀가 아팠습니다. 이내 심한 두통까지 와서 찬양이 이어지는 동안 예배실(드림홀)에 들어가지 못하고 로비에서 화면으로 송출되는 찬양을 함께했던 고1의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로비에서 영상을 보며 찬양해도 괜찮아. 어느 곳이나 하나님은 함께 계셔.”라고 따뜻한 말씀과 함께 기도해 주시던 선생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목사님이 옆에 계셨기에, 약을 먹어도 낫지 않던 두통이 아주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드림홀에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래에 대한 막막함에 두려움으로 가득 찬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만지시고 회복하게 하셔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배를 통해 어둠에서 밝은 빛으로 찾아와 주신 '나의 친구 예수님'으로 인해 희망과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희망의 빛이 기반된 작은 도전을 통한 성장

정서적 안정감을 찾았지만 교회 활동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저에게 학생회 멤버로 활동하던 동생의 모습이 촉매제가 되어 고3 여름에는 수련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수능과 내신을 준비해야 하는 불안함도 있었지만 믿음으로 넘어서는 도전을 하고 싶었습니다. 수련회 중에 저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의 마음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챙기고 돌아보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삶의 방향을 알게 하시고, 불안

한 청소년기 마지막 고3의 시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었던 저에게 관계 형성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게 해 주셨고 더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수련회에 참석하기로 한 작은 도전을 통해 고등부에서 항상 말씀하셨던 '부어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어렵듯이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원동력이 되어주리라 믿습니다.

반복적인 도전은 이제 일상으로

고3을 마무리하며 10대의 마지막 기회라고 여겨 참석했던 고3 수련회!

대학부와 함께 진행된 수련회는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느꼈던 저에게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두려움은 잠시, 고등부 안에서의 작고 큰 모임과 나눔의 반복적인 도전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훈련이 되어 수련회 시간이 전혀 두렵거나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배님들과 친목을 다지고 친구들과도 특별히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어려웠던 일들도 그 공간에서만은 용기를 낼 수 있었고, 그래서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귄 수 있었습니다. 여러 활동이 진행되면서 처음으로 집단 안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끼리끼리의 모임이 아닌, 함께 어울리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고등부 이용호 목사님과과의 수련회도 중등부부터 고등부까지 6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냈기에 더욱 뜻깊은 수련회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서운한 일이 있다가도 자고 일어나면 아무 문제가 아닌 것이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편안함이 일상이 되어 가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작은 도전들을 예쁘게 봐 주셔서 이것이 일상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구나!' 하는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2026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졸업을 앞둔 시기, 이제 대학에 진학하고 사회에 나가 어른이 된다는 것이 믿기지 않고 삶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아직 어른이 되기에는 부족한 면도 많고 철도 덜 들어 조금은 막막한 느낌입니다. 사회인이 되면 제가 하는 모든 면에 책임 있는 행동으로 하나하나를 신중히 행해야 합니다. 또한,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하고 성숙한 믿음의 신앙인으로 생활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많은 부담을 느낍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대학 생활, 사회로 나아가는 첫 발걸음! 영락교회 고등부 안에서의 믿음 생활은 저의 꿈을 찾아가고, 회복하고,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성장의 힘을 바탕으로 대학교에서도 비상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 서 있길 소망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영락교회 대학부예배, 활동 및 나눔을 통해 말씀하시며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더욱 성장해 나갈 기대해 봅니다.

2025년, 청소년의 마지막 시기인 고3을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었고, 대학에 수시 합격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온 하나님과 믿음의 끈을 여기서 끝내지 않고 2026년도에도 지속해서 이어가도록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사회라는 거친 파도 속 인생의 항해를 시작하며, 지금까지보다 더욱 더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다짐해 봅니다. **만남**

복음의 능력으로 찬양하는 영고찬



이영덕 집사
서초교구
영락고등부찬양대 대장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사편 150:6)

지난해 12월 21일 주일 저녁에 선교관에서는 ‘Cantate Domino_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주제로 정기 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시기와 질투 등 탐욕으로 가득 차 있지만, 한 줄기 빛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사함 받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여호와를 송축했습니다.

영락고등부찬양대(이하 영고찬)는 매년 성탄절 및 연말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 드리는 정기연주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자리에 함께해 주신 많은 성도님을 통해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영고찬 친구들은 영락의 다음세대이자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입니다. 저 또한 영고찬으로 함께했던 시절을 생각하

며 저에게 주신 ‘다함없는 은혜’에 감사하며 학생들에게 베풀어 주고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은 학업과 진로에 힘들고 지치는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주말이 되면 교회에 나와 찬양 연습 및 찬양대원으로 예배 드리는 학생들의 열정과 헌신을 볼 때마다 매번 감동하여 아낌없이 응원하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함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2026년에도 복음의 능력으로 힘껏 찬양하는 영고찬이 되기를 소망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남**



다시 간 태국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손길



한수빈 성도
청년회 광야소리
2025 태국선교팀장

2024년 태국 해외선교를 마친 후, 우리 끌린힘엘팀은 이 사역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선교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특히 작년에 방문했던 반녕야오학교(불교학교)에서 진행했던 프로그램들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들을 수 있었고, 그 결과 2025년에는 성경 캠프 개최를 요청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계기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태국 선교를 준비하며 사역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역을 진행할 예정이었던 반녕야오학교가 휴교하게 되면서 갑작스럽게 취소되었습니다. 우리는 현지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할지 다시 기도하며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팀원들과 논의 끝에 우리는 '샘물교회' 인근에 거주하는 아이들과 샘물보육원의 아이들을 초청하여 사역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글 교육과 스포츠 활동, 전도 팔찌 만들기, 쿠키 클래스, 워십 찬양, 그리고 위생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처음 샘물교회에서 계획했던 위생 교육은 아이들에게 발을 씻는 방법을 알려주는 '발 씻기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나 태국 전역에 A형 독감이 유행하면서, 사역에 참여하기로 했던 아이들 약 120명 중 실제로 모인 아이들은 30명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예상보다 인원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지만 '이 아이들을 더 깊이 섬길 방법은 없을



- 1. 샘물교회는 청년회가 파송한 백정인 선교사(현재 영락교회 중기선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현지 나눔선교팀 사역 교회다. 백정인 선교사는 본인의 강점인 태권도 사역과 함께 박원길 파송선교사, 정태일 협동선교사 등과 나눔선교팀을 이루어 현지 교회의 선교적 교회 운동과 미전도 종족 복음화 사역을 담당하고 있다. 나눔선교팀은 각 사역에 담당자를 세우되 서로 협력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샘물교회에서
한글교육사역 중
단어와 이름을 쓰는
아이들



까?’를 함께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단순한 교육을 넘어,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직접 섬기는 사역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면서, 발 씻기 교육은 세족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발을 씻어 주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이 아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기억되기를 소망하며 세족식을 준비했습니다.

세족식을 준비하는 과정은 놀라울 만큼 은혜로웠습니다. 사진을 찍는 사람, 물을 길어오는 사람 등 모든 팀원이 자발적으로 역할을 맡아 한마음으로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타인의 발을 씻어 주는 행위가 마음 깊이 와 닿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이 마치 제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가왔고, 세족식은 단순한 행위를 넘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샘물교회 사역을 마친 후, 우리는 소수민족 마을인 산족마을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마을 가장 안쪽에 거주하는 라후족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후와이남린교회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0.1%에 불과한 태국에서, 그것도 주류 민족이 아닌 소수민족 마을에 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큰 감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지 목사님께서서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던 수십 년 전 이곳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후족의 삶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을 만큼 열악했습니다. 무너져 가는 집에서 40년째 누운 채 살아가는 환우를 만나기도 했고, 교회의 기도를 통해 30년 만에 일어나 앉게 되었다는 분도 볼 수 있었습니다. 걷지 못하던 분이 걷게 되었다는 간증을



들을 때는 말로만 듣던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직접 체험하는 듯했습니다. 동시에 마약성 열매 중독으로 치아와 잇몸이 심각하게 손상된 주민들의 모습이 큰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삶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진심으로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축호 전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후와이남린교회에서 주일예배를 드리며 모든 사역을 마무리했습니다. 예배 중에는 선교사님께서 준비해 주신 성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샘물교회에서 세족식을 경험해서인지, 성찬식에서도 한 사람씩 앞으로 나아가 떡과 포도주를 받는 시간이 더욱 깊은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이 경험은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알아가고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4박 6일의 태국 선교 일정에서 세족식과 성찬식을 경험하며, 한국에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감동 속에 주님의 마음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작은 우리

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셨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스스로 바라볼 때는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작년보다 참여 인원이 적고, 계획했던 사역이 취소되며 '이 선교를 향한 마음이 나의 욕심은 아닐지' 고민도 했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방법으로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음을 태국에서 분명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글을 마치며,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신명기 32:10) 아멘! **만남**

복음으로 춤추는 군선교, 현장에서 복음의 길을 제시하다

선교부 군선교팀

영락교회 선교부는 1월 5일 오전 7시, 종로구 한국기독교 연합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249회 총회 군선교 후원회 2026년 신년 조찬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기도회는 영락교회 후원으로 진행되었으며, 군선교를 위해 한국 교회가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총회 군선교 조찬기도회는 매월 첫째 주 월요일 실시되고 있으며, 타 교단에서 부러워하는 기도회이기도 합니다. 담임목사님께서서는 총회 군선교 후원회 회장으로 8년째 앞장서서 섬기고 계십니다.

예배에서 김운성 담임목사님께서서는 '예수님을 생각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며, "군선교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의 인내를 본받아 군선교 목표를 달성하자."라며 은혜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선교부장 서상현 장로의 간절한 기도와 영락교회 여전도회 연합찬양대가 예배를 섬겨 주셨고, 오랜 시간 군선교 현장을 섬겨 온 네 분의 군선교사 은퇴식이 함께 진행되어 감사와 존경을 나누는 시간도 이어졌습니다.

이 조찬기도회를 통해 선교부는 올해 군선교의 방향을 더욱 분명히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영락교회의 올해 표어인 '복음으로 춤추는 교회'를 군선교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에 선교부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군선교사역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 여전도회 연합찬양대 찬양
◀ 김운성 목사님 말씀 선포

복음의 본질로 다가가는 군선교

군선교의 출발점이자 중심은 언제나 복음 그 자체입니다. 선교부는 순수한 복음의 능력으로 장병들에게 다가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군 생활의 한복판에서 구원과 위로를 전하는 복음사역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복음이 부담이 아닌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전해질 때, 장병들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열릴 것입니다.

군선교 현장의 변화에 따른 소통과 접근

최근 군선교 현장에는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병장 월급이 200만 원 시대로 경제적 자립도가 향상되면서, 과거 초코파이를 매개로 한 사역의 영향력은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확대로 집체예배와 같은 전통적인 종교 활동 참여가 위축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디지털 콘텐츠를 접목한 새로운 선교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각 부대와 장병들의 현황과 필요를 세밀히 파악하여 맞춤형 선교를 전개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신세대 장병들에게 익숙한 소그룹 중심의 전도와 말씀 교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회 카페 설치 등 지원을 통해 복음과 주님의 사랑이 그들의 실



합심 기도

제 삶에 깊이 닿도록 섬기고자 합니다.

제대 이후까지 이어지는 신앙의 연결

선교부는 작년 대학부 및 청년회와 함께 6.25 구국성회 결연 행사에 동참하며, 미래를 짊어질 믿음의 용사들을 세우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시작은 미미했지만, 올해도 이러한 뜻깊은 행사에 기도로 동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군선교가 군 복무 기간에만 머무는 단기 사역이 아니라, 제대 이후에도 장병들이 신앙생활을 지속하도록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영락교회의 젊은 층을 보강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미래 세대를 세우는 핵심 사역입니다. 이에 선교부는 해당 사역의 우선순위를 높여 현장의 군종목사 및 군선교사들과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연결고리'를 통해 교회와 군선교 현장이 함께 선순환의 시너지를 창출해 나가고자 합니다.

타 부서와 함께하는 협업

선교부(부장 서상헌 장로, 군선교팀)는 그동안 축적된 현장 경험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대학부, 전도부, 음악부 등 여러 부서와의 협업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대학부의 군 장병과의 현장에서의 연결, 전도부의 복음 제시와 음악부의 찬양 사역 등이 선교부와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복음의 능력이 더욱 크게 발휘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서 간 '복음의 동역'은 영락교회 공동체 전체가 함께하는 군선교의 올바른 방향입니다.

복음으로 춤추는 군선교의 길 위에서, 선교부는 올해도 변함 없이 현장을 향해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이 거룩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만남**

미술문화 선교의 새 길을 열다



위영혜 권사
서초교구
영락미술인선교회 고문

2025년 성탄절특별전은 선교부 산하 영락미술인선교회가 걸어온 19년의 여정을 집약한 특별한 전시로 진단하고 싶습니다. 한경직목사기념관에서 미술단체전으로는 최초로 열린 이번 전시는 단순한 작품 전시를 넘어 미술문화 선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주는 계기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자리였습니다.

2025년 12월 21일부터 2026년 1월 4일까지 한경직목사기념관 전시실에서 개최된 성탄절특별전은 신앙과 예술적 언어로 표현한 작품을 통해 깊은 신앙적 감동을 전했습니다.



1부 개막예배는 '저 들 밖의 한밤중에' 찬송과 박용준 목사님의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마태복음 2:1~6)라는 설교 말씀으로 은혜롭게 되었습니다.

영락미술인선교회의 소명적 비전

2007년 선교를 목적으로 창립된 영락미술인선교회는 회화·서예·조소·공예·디자인·영상 등 다양한 분야의 작가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시각 기호와 언어로 표현하는 미술문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매년 외부 갤러리 정기전을 통해 세상 속으로 기독교 미술 문화를 구현하고, 교회 내 성탄절특별전을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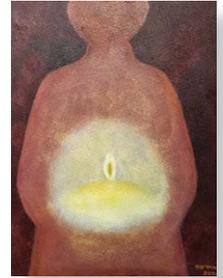
성도들과 신앙 공동체의 은혜를 나누며, 군부대 연합 그림 봉사로 군인들의 치유와 회복을 돕고 전도의 길을 열어 갑니다. 또 김운성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교회의 목사님들이 결성한 한국교회연합전시회(KCAF) 참여로 기독교미술문화 확산에 동참하며, 국외 선교사역의 후원, 교회 내 미술과 관련된 전문적인 재능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미술 문화강좌를 통해 작가의 삶과 신앙을 조명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작은 감동과 기쁨을 함

유안미, 십자가 사랑
45×60cm, 2025



김갑수, 비상
40×63cm, 2025

엄해옥, 예수님은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Merry Christmas, 70×55cm, 2025



임규열, 내 안의 지성소
65×50cm, 2024

께 나누고 있습니다. 영락미술인선교회는 선교와 치유, 공동체의 신앙 성장을 위해 기독교 미술 문화의 빛이 스며 들게 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습니다.

‘기쁨의 근원 하나님’ 미술과 음악, 신앙 공동체의 울림

한경직목사기념관 2층 전시실에서의 2025년 성탄절특별전의 주제는 ‘기쁨의 근원 하나님’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시편 16:11) 이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고, 회원들은 각자의 신앙과 예술적 언어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작품으로 표현했습니다. 미술 작품 속에 깃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파되길 바라며, 하나님의 진리를 느끼는 자리인 영락교회 갤러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초대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전시로 영락미술인선교회의 바람은 온 세상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 “네가 어디에 있는냐”라는 한경직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들의 신앙의 본질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는 장이 되길 바랄 뿐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공동체의 울림이 있는 개막예배 및 음악회를 은혜 가운데에 개최하였습니다. 1부 개막예

배에 이어 김갑수, 서동희, 송경희, 임규열 회원의 작품 설명과 함께 각자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기쁨을 전하였으며, 방문하신 내빈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성탄의 기쁨을 느끼며 서로 스며드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2부 음악회는 헵시바트리오와 함께 최유경, 김지미, 임수현 연주자들의 간증과 은혜로운 피아노 3중주 연주가 더해져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아름다운 전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2025년 성탄절특별전의 새로운 의미는 예술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문화선교의 장이었고,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와 미술인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연결의 통로이기도 했으며, 회원들의 작품과 간증, 음악회가 어우러져 신앙공동체의 은혜와 비전을 확장하는 뜻깊은 전시였습니다. **만남**



유당주, 연약한 내 영혼, 28×25×50cm, 2010

사회환경의 변화와 영락교회 국제예배의 비전



조준호 장로
인천교구
국제예배부장

국내 외국인 거주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타국에서의 외로움, 불확실한 진로, 경제적 불안정, 사회적 부적응 등으로 다양한 도전을 받습니다. 외국인의 증가와 교회의 부흥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러한 사회 변화와 관련하여 영락교회 국제예배가 나아가야 할 미래의 비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 사회환경의 변화

▷ 인구구조의 변화

1960년(1,080,535명)에 비해 2024년(238,300명)의 출생아 수가 1/4로 감소했습니다. 통계청 발표 인구추계에 따르면, 2022년과 2042년의 내국인 인구 중 15~64세 생산연령 인구 비중은 감소(70.5%→55.0%), 65세 고령인구 비중은 증가(17.8%→36.9%)할 전망입니다.



▷ 외국인 유학생 급증 및 정부 정책 변화

외국인 유학생이 많은 상위 대학을 살펴보면 2024년 기준, 외국인 유학생이 한양대 8,264명, 경희대 6,929명, 연세대 6,62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양대는 재학생(22,610명) 이외에 추가로 약 30% 이상의 외국인 유학생이 더 유치되어 재정 등 대학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2024년 9월 '톱티어(Top-Tier) 비자', '청년드림 비자' 등을 통해 우수 인재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신(新) 출입국 이민정책'을 발표했고, 2025년 9월에는

'K-STAR 비자 트랙'을 신설하여 과학기술 우수 인재에게 취업 요건 없이 거주 자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외국인 우수 인재 유입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K-팝(Pop), 대한민국의 위상 변화

K-팝(BTS 등), K-영화(기생충, 케이팝 데몬 헌터스 등), K-콘텐츠(오징어게임 등) 등 한류를 계기로, 전 세계 외국 젊은 이들의 한국 방문 니즈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2. 영락교회 국제예배의 현재

▷ 현황

국제예배는 여러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에게 제공되는 영어예배(IWE: International Worship in English)로, 어른들을 위한 1, 2부예배와 어린이예배가 있습니다.

2025년도 국제예배의 주당 평균 출석 인원은 1부 93명, 2부 38명이었으며, 1부의 새신자(방문자)는 1년간 총 393명, 2부는 총 208명이었습니다[표1]. 등록 출석 외국인은 41명, 미등록 출석 외국인은 11명이었습니다[표2].

[표1] 2025년 국제예배 출석 인원 현황

| 기간 1.1.~12.21. | 1부예배: 10 a.m. 전통식 | | 2부예배: 3:30 p.m. 현대식 | | 연합예배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 |
|-------------------|----------------------|-----|------------------------|-----|-------------------------|-----|
| | 출석 | 새신자 | 출석 | 새신자 | 출석 | 새신자 |
| 평균(명) | 93 | 9 | 38 | 4 | 143 | 12 |
| 합계(명) | 4,353 | 393 | 1,880 | 208 | 431 | 35 |

[표2] 2025년 국제예배 등록/미등록 외국 국적 출석 교인 현황

| 총 52명 | 계 | 인도네시아 | 미국 | 잠비아 | 브라질 | 네덜란드 | 남아프리카 공화국 | 기타 |
|-----------|----|-------|----|-----|-----|------|--------------|----|
| 등록 교인(명) | 41 | 23 | 10 | 3 | 2 | - | - | 3 |
| 미등록 교인(명) | 11 | 2 | 5 | - | - | 2 | 2 | - |

▷ 부흥 방안 마련을 위한 스왓(SWOT) 분석

영락교회 국제예배가 가지는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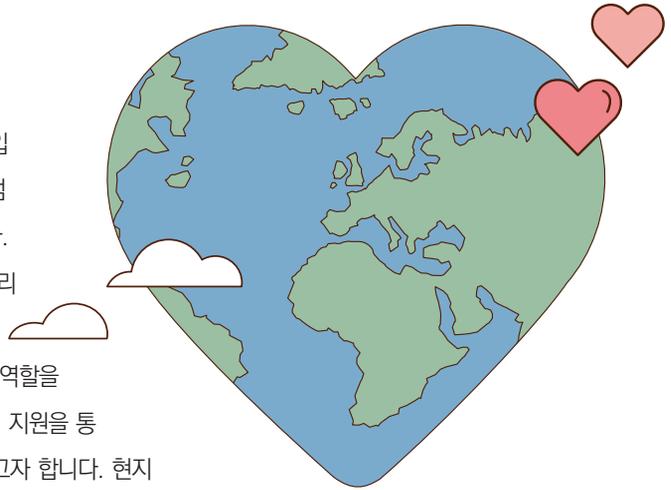
| | | | |
|-----------|---|-----------|---|
| 강점 (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배 기본 구조 갖춤: 1부(전통), 2부(현대), 어린이예배 → 세대·취향별 선택 가능 기존 교회 내 법률, 의료, 상담, 복지, 교구·소그룹, 사회봉사, 선교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 | 약점 (W)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예배 외국인 사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사역 초점의 명확성 부족 예배를 위한 최소 인력 부족 → 음향, IT미디어, 방송 엔지니어 등 |
| 기회 (O)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 유입 환경: 유학생 가정 증가 → 국제예배 잠재 수요 확대 외국인 평균 연령 31.5세 → 청년 중심 역동성, 성장 가능성 대학원 졸업 등 영어 능통자 → 자국 귀국 시 영향력 높음 | 위협 (T)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 소재 외국인 대상 영어예배 제공 개신교 교회로 인지도 미약 영어 능통 교역자, 교사 확보 어려움 → 설교·상담·양육·친교의 깊이 있는 지원 부족 |

3. 영락교회 국제예배의 비전

▷ 기본 철학 및 방향: 선교적 접근

앞으로 더욱 많은 젊은 외국인들이 급속도로 들어올 것입니다. 국제예배의 미래 사역은 '선교 전략적' 관점에 초점을 두고 사역을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밀려 들어오는 외국인들과 이들의 커뮤니티 동료들을 우리의 중요한 전도 대상으로 품는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 현지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관리와 차별화된 지원을 통해 영적 회복, 치유와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자 합니다. 현지 적응, 정착, 사역의 실행에 있어서 자국민이 가지는 유익(언어, 시간 및 자원의 활용 등)은 매우 클 것입니다. 마치 20~30년 전 미국으로 유학을 다녀온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현지 교회에서 복음을 접하고, 신앙의 성장을 이루며, 귀국하여 우리나라 곳곳에서 크리스천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 2026년 국제예배 사역(안)

사회환경의 변화, 국제예배의 현황, 스왓 분석 및 외국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핵심 사역을 우선 실시하고자 합니다.

| | |
|----|---|
| 전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점(대학교, 문화원, 대사관, 중점 주거 지역 등)을 통해 미지 않는 외국인을 교회로 인도, 거점별 책임자 배정, 훈련, 관계 전도 강화 |
| 양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적인 터치와 함께 개인적 양육 실시 평일을 활용하여 말씀, 찬양, 기도, 나눔의 양육 진행 교회 내 협력 네트워크(법률, 의료, 상담, 복지 등) 강화 |
| 예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찬양팀, 찬양대, 음향 등 예배 구조 지원 강화 |

2026년이 밝았습니다. 국제예배는 교회 속의 작은 교회입니다. 개척 교회처럼 새로운 마음으로, 또한 모든 사역을 '선교 전략적' 관점이라고 하는 명확한 방향성 아래에서 행하고자 합니다. 그럴 때, 사역의 결과가 외국인 전도와 양육, 나아가 국제예배의 부흥,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사역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남**

사도행전의 길 위에서 다시 묻다

튀르키예·그리스 성지순례

제자양육훈련부

성서지리반에서 사도행전 말씀을 공부하며 초대 교회의 시작과 복음의 확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강의를 통해 배워 왔다. 말씀으로 익힌 내용을 따라 실제 성지를 순례하니, 교회는 제도나 건물이 아니라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았던 선진의 믿음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이 마음 깊이 다가왔다.



동·서방 기독교와 이슬람 문명이 교차한 상징적 장소, 술탄 아흐메트 광장(구 콘스탄티노폴리스 중심)에서

책 속의 바울에서, 길 위의 바울로

사도 바울은 약 13년에 걸쳐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감당하며 2만 km가 넘는 길을 걸었다. 돌에 맞고, 배척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에도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말씀으로만 접할 때는 그 헌신이 위대하게 느껴질 뿐, 내 삶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땅속 교회에서 배운 '생존보다 신앙'

하나님께서서는 박지은 목사님을 비롯한 32명의 수강생에게 바울이 걸었던 그 선교의 길을 직접 따라 걸어보는 9박 11일의 성지순례를 허락해 주셨다. 이번 성지순례는 지난해 11월 17일 인천에서 출발해 이스탄불에 도착하며 시작되었다. 이튿날 이스탄불에서 카이세리를 거쳐 갑바도기아와 폰야로 이동하며, 괴레메 골짜기



마르스 언덕의 바울 설교문이 새겨진 동반 아레오바고 앞에서(사도행전 17장에서 알지 못하는 신을 선포한 장소)



바울과 실라가 투옥되었던 곳에서(사도행전 16장)

의 수많은 석굴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 숨어 지냈던 테린구유 지하도시를 방문했다. 빛과 공기가 제한된 땅속 깊은 공간에서 예배 드렸던 초대 성도들의 흔적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예배가 발각되면 죽음을 각오해야 했던 그 자리에서, 그들은 생존보다 신앙을 선택했다. 편안한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온 내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믿음을 지켜야 했던 공통점

11월 19일에는 비시디아 안디옥과 라오디게아, 파묵 칼레를 거쳐 바울과 초대 교회의 발자취를 따라 걸었다.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비시디아 안디옥, 미지근한 신앙으로 책망받았던 라오디게아 교회 터 앞에서 교회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20일에는 빌라델비아와 사데교회 터를 방문하며, '칭찬받았던 교회'와 '책망받았던 교회' 모두가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했다는 공통점을 마음에 새겼다.

도시 한가운데 스며든 복음의 발자국

21일에는 에베소로 이동해 사도요한교회와 두란노서

원 등을 둘러보며 복음이 도시 한가운데로 스며들던 모습을 떠올렸다. 22일에는 아테네 아레오바고에서 철학자들 앞에 서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설교 현장을 바라보았고, 고린도에서는 연약한 교회를 끝까지 품었던 바울의 목회적 심정을 되새겼다.

강가 성찬, 루디아의 믿음과 오늘이 만나다

23일 메테오라 수도원을 거쳐, 24일과 25일에는 데살로니가와 네압볼리(까발라), 그리고 빌립보로 이동했다. 빌립보의 원형극장과 교회 터,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지하 감옥을 돌아보며 복음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뿌리내렸는지를 깊이 묵상했다. 특별히 빌립보의 루디아교회 문밖 강가 세례터에서 드린 성찬식은 순례자인 우리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열려 유럽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루디아가 세례받았던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떡과 잔을 나누며 복음의 시작을 다시 고백했다. 화려한 예배당이 아닌 강가에서 드린 성찬은 초대 교회 예배의 본질을 분명히 보여 주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주님을 영접한 한 사람의 결단에서 시작되었고, 복음은 삶을 통해 전해졌음을 몸으로 느끼는

시간이었다. 그 강가에서의 성찬은 2천 년 전 루디아의 믿음과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로 이어지는 거룩한 연결이었으며, 각자 삶의 자리에서 다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겠다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결단의 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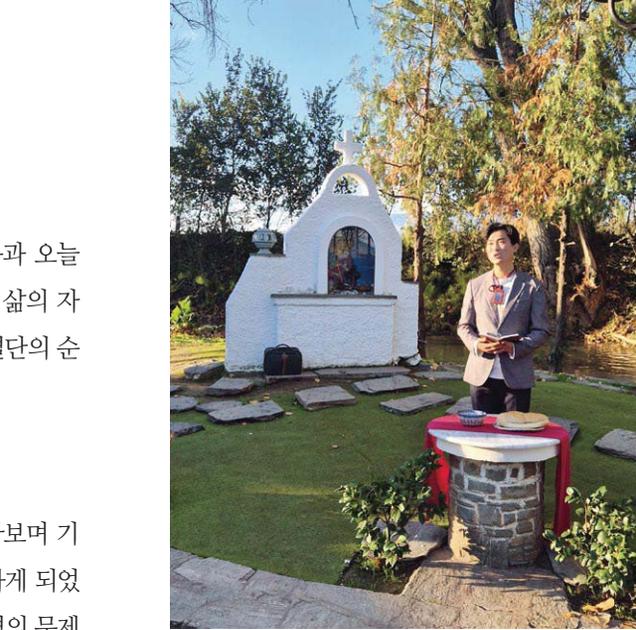
환경 아닌 '선택'이 신앙을 증명한다

11월 26일, 이스탄불에서 성소피아성당과 블루모스크를 바라보며 기독교와 이슬람이 공존하는 역사 속에서 오늘의 교회를 생각하게 되었다. 이번 성지순례를 통해 분명히 깨닫게 된 것은, 신앙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는 사실이다. 믿음은 편할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불이익과 손해가 따를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로 증명된다.

열린 결말 사도행전, 지금은 '나의 장'

6개월 동안 배운 사도행전 말씀과 9박 11일 동안 마주한 초대 교회의 박해와 순교의 현장은 바울의 서신, 초대 교회와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 동방정교회와 이슬람에 이르기까지 초기 기독교의 흐름을 개관하며 이해하는 시간이었고, 이제 내 신앙 삶의 기준이 되었다. 사도행전이 열린 결말로 끝난 것처럼, 복음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계속 기록되고 있음을 믿으며, 이 모든 은혜의 여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다. 아멘! **안녕**

유럽 최초의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진 루디아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은 장소에서 성만찬 후



성찬식을 했던 루디아의 세례터에서

초기 기독교 수도자들이 암굴에서 은둔 생활을 한 괴레메-파사바 계곡에서



평범함을 들고 약속의 자리로



신주현 목사
중등부

기억 속에 남겨 두신 하나님의 손길

제 삶을 돌아볼 때마다 어떠한 특별한 사건들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고 신실하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먼저 고백하게 됩니다. 제 이야기는 눈에 띄는 성공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범한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만나 주시고 이끌어 오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릴 적 저는 종종 자신에게 질문하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는 무엇일까?”

눈에 띄는 재능이 없어 보였던 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누었던 말과 상황들을 비교적 오래 기억하는 편이라는 사실조차 부담스럽게 느꼈습니다. 좋은 기억

뿐 아니라 아픈 기억과 상처도 쉽게 잊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의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힘든 기억은 잊게 해 주세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기억을 없애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람을 기억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통로로 사용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눈 이야기를 마음에 담게 하시며, 기도의 자리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제가 하찮게 여기던 평범함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다른 이들을 향한 마음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지의 방향이 바뀌던 시간

중학생 시절 교회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기도 중 설명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며, 제 삶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정죄가 아닌 사랑이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저를 여전히 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이후에도 자주 흔들렸습니다. 익숙한 삶과 세상의 기준이 더 좋아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선생님과 믿음의 친구를 통해 조용히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 조금씩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고, 삶의 방향도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청년 시절, 수학 과외를 하며 학업과 생활을 이어 갔습니다. 한 시간, 한 시간 쌓아 올린 수입은 제게 매우 소중한데,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가장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마주하게 하셨습니다.

그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서 작정 헌금을 드리기로 결단하게 되었고, 이후 오랜 기간 수학 과외를 통해 벌어들인 수입 가운데 일부를 꾸준히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매번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그 선택은 제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마태복음 6:21)

앞으로 걸어가게 될 자리

이후의 길은 제 계획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분명히



드러나는 경험으로 펼쳐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마다 장학금을 통해 학업의 길을 열어 주셨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부어 주셨습니다. 제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 안에서 공부의 길을 이어 오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돌아보면 제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약속의 결과보다,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 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잠언 16:9)

이제 저는 2026년, 중등부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저를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아이들의 삶 곁에 조용히 머무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빠른 결론을 말하기보다 이야기를 들어 주고, 정답을 주기보다 함께 질문하며, 아이들이 일상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돕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전히 배우는 사람이며, 하나님 앞에서 있는 한 사람의 성도입니다. 이 자리 또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의 자리임을 믿으며, 기쁨으로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만남**

배움에서 섬김으로, ‘놀라운 상담자’를 따라 걷는 2년



김연수
강남교구

갑작스럽지만 분명했던 ‘부르심의 발걸음’

제가 영락교회 상담대학에 들어가게 된 것은 아주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타 교회를 청년부까지 다니다가 결혼하기 1년 전부터 남편의 교회인 영락교회에 온 지라, 영락교회에서는 하기 단기선교 준비 과정에 몇 번 참여했던 것이 제 섬김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제 아이들이 영락교회 영아부, 유아부 그리고 유치부를 거치는 동안 엄청난 사랑과 환대를 받으면서 사역자님들의 헌신적인 섬김을 보았습니다. ‘이 감사함을 어떻게 갚아야 할까?’ 하는 빛진 자의 심정은 나날이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당에서 전화상담 봉사자 모집을 위한 교육 과정인 상담대학 수강생을 모집하는 전단을 받으면서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신청 부스로 향했고, 그렇게 등록했던 것이 2년 전이었습니다.

말씀 위에서 다시 쌓아 올린 상담 공부

사실 저는 현재 대학원에서 상담 공부를 하고 있어서 처음에는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는 차원으로 임했었는데, 그 생각은 이내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선 영락의 상담대학 과정은 한 학기에 두 과목을 수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루는 양도 많았고, 때로는 학위 과정에서 수강할 기회를 놓쳤던 과목을 이곳에서 만나 저의 부족한 지식을 보완할 수도 있었습니다. 2년 4학기

동안 성경과 상담, 가족 상담, 상담의 기법, 중독과 기독교 상담, 이상심리학, 기독교 상담학, 전 생애 발달과목회 상담, 대상관계이론 등을 수강할 수 있어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과목을 수강하면서 가장 고마운 것은 상담 관련 지식을 인본주의적 기반이 아닌, 기독교 상담을 염두에 두고 성경에서 말하는 세계관 안에서 기독교 상담의 기반을 다지는 데에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 구하며 배운 ‘상담자의 마음’

상담대학에서 수강하면서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상담 시작 전, 기도로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를 간구하며 수업에 임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수강을 마친 후, 전화상담원이 되어 내담자들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상담원이 될 것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 매 주일 오후 실시간 줌(1주, 16주는 대면 모임)으로 하는 수업이 쉽지 않았지만, 전화상담원이 되기 위한 하나님과의 약속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상담대학 과정은 매 학기가 16주로 2과목을

수강(2년 4학기, 총 8과목 이수)하게 되는데, 저처럼 전화상담원이 되기 위한 양육 과정도 있고 상담 공부를 통하여 자기의 성장을 위해 수강할 수 있는 두 과정이 있습니다. 봉사를 원하시는 분이나 성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2026년도에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 통의 전화 너머에서 들려온 눈물의 이야기들

2년 4학기를 마무리하고 전화상담원이 되기 위해 진행한 전화상담 실습 과정은 저에게 매우 인상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실습하며 지켜보니 참으로 다양한 전화가 오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가족을 전도하고자 했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아 속상한 상황, 읊처럼 여러 고난이 몰려온 상황, 가족과의 갈등 상황, 때로는 사소한 고민까지... 그리고 상담원분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마음을 다해 들으며 옆에 있어 주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기묘자, 모사'를 닮아가는 상담자가 되기까지

2년 동안의 공부가 쉽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수강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장차 오실 예수님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라고 표현하는데, 기묘자, 모사의 영어 표현은 wonderful counselor(놀라운 상담자)라고 합니다.¹

예수님께서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을 쉬게 하시고, 가장 낮은 곳에서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셨습

2026년 상반기

한국목회상담협회 인증기관

신입생 모집

영락상담대학

1 교육과정(희망과정 선택)

- 1) 전화상담원 양성 교육과정(만60세 이하 본교회 제작: 9만원)
- 2) 자기성장 교육과정(본교회 교인: 12만원)
- ※ 희망 선택과정으로 2년(4학기) 계속 이수

2 교육안내(2월 22일 2시 개강)

- 1) 일시: 2월 22일~6월 14일(주일 2시~4시50분/총16주/5월10일 휴강)
- 2) 방법: 대면교육(1주~16주) 실시간 ZOOM 교육(2주~15주)
- ※ 교육시간과 봉사시간 중복시 온라인교육(녹화)영상 시청가능(확인서제출)
- 3) 과목: 가족상담(8주) 상담이론의 이해와 실제(8주)

3 전형 방법

- 1) 신청방법: 지원서(QR코드) 다운 후 작성 이메일 또는 직접제출 (2월 6일 오후 3시 마감)
- 2) 전형방법: 서류심사후 면접(2월 8일 오후 3시), 합격후 교육비입금
- 3) 문의접수: 베다니광장 또는 상담부(봉사관3층)
02)2280-0171 박승근 팀장 010-4372-6015

4 자격취득

전화상담원 봉사자 양성교육생은 2년 4학기 수료 후, 한국목회상담협회 기독교상담사 자격 취득 가능



영락교회 | 상담부

니다.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야 예수님께서 더 부어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메말라가는 땅에 내리는 이슬 한 방울처럼 메마른 영혼이 생명을 잃지 않게 돕고자 합니다. 시간의 십일조를 전화상담원으로 봉사하면서 드리며, 제가 가진 달란트를 사용하면서 곁을 내어주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섬기고자 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찬연히 하늘의 푸른빛을 신록으로 담아 곁을 내어주는 버드나무처럼. **만남**

1. 한성열, 『원더풀 카운슬러』 (규장, 2025)

제자양육과정, 당신의 특권을 누리세요



이순호 집사
성동·광진교구
제3년선교회 부회장



익숙하지만 낯선 주제, 예배

26차 인터넷해외신교를 다녀온 후 제자양육과정 중 ‘예배 과정’을 함께 수강했습니다. 지난여름 체험한 은혜를 계속 이어 가고픈 마음이었습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필수이자 삶의 일부라고 생각했고, 교회에서는 물론 직장에서도 동료들과 매일 경건의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따로 배운다는 것이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서로의 고민을 나누며 위로를 얻는 시간

‘예배 과정’에는 조를 나누어 삶을 나누는 시간도 있었는데, 기억에 남는 주제는 ‘청소년 자녀의 예배 참석’과 ‘가정예배’였습니다. 대부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청소년 자녀를 둔 조원들은 자녀의 예배 출석을 위

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다독이며 격려했습니다. ‘가정예배’의 경우 기혼자들은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시도해 보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지속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나누다 보니 위로를 받았고 다시 시작해 보아야겠다는 용기와 희망도 얻었습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며 기쁨

모태신앙인 제게, 예배는 마치 ‘여름 방학 숙제’ 또는 하나님께 감사받아야 하는 ‘밀린 일기’였습니다.

8주간의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보니, 몇 년간 침체한 신앙생활과 무기력함은 영적인 게으름으로 드러난 형식적인 예배가 원인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떨결에 참여했지만,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문제가 아닌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며 기쁨인 예배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새 더욱 간절히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고, 우리 교회에서 풍성하게 준비한 예배의 자리를 찾아보며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봄을 기다리며

‘굳이 이 과정이 필요한가?’ 하던 생각이 바뀌어, 이제

는 초신자뿐만 아니라 연륜이 찬 기신자도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과정임에 동의합니다. ‘핵심 필수 과정’이라고 이름 지은 이유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봄이 오면 남은 필수 과정도 수강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성도님들도 망설이지 마시고 주저 없이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변화를 기대합니다. **만남**

2026년 상반기 양육 및 훈련 일정

일정 : 2026. 3.1(주일) ~ 6.28(주일)

▷ 핵심 필수 과정 (성경, 성령, 예배, 기도, 전도)

| 내 용 | 시 간 | 반 명 | | 장 소 | 강 사 | 섬김제자 |
|-----|---------------|--------|--------|----------|-----|--------|
| | | 상반기 | 하반기 | | | |
| 주일 | 08:20 ~ 09:10 | 성경, 예배 | 기도, 전도 | 봉사관 505호 | 박찬양 | 최정심 권사 |
| | 09:30 ~ 10:20 | 성령, 기도 | 성경, 예배 | 봉사관 505호 | 김모세 | 이원희 집사 |
| | 14:40 ~ 15:30 | 기도, 전도 | 성경, 성령 | 봉사관 505호 | 권강호 | 김대웅 집사 |

※ 향촌직(장로, 권사, 안수집사) 신청자격 : 향촌직 선거관리규정에 의거 제자양육훈련부 2단계 핵심필수 과정 5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 향촌직 후보자들은 상반기부터 미이수과목을 꼭 신청하여 수강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일반 성장 과정

| 내 용 | 시 간 | 반 명 | 장 소 | 강 사 | 섬김제자 |
|-----|---------------|------------|----------|-------|--------|
| 주일 | 10:50 ~ 11:40 | 복음의 능력과 선물 | 봉사관 505호 | 이후림 | 이은예 집사 |
| | 11:50 ~ 12:40 | 기독교 변증 입문 | 봉사관 505호 | 김종훈 | 박종희 안집 |
| | 12:50 ~ 13:40 | 구약 탐방(가칭) | 봉사관 지하 | 박동진 | 이재용 집사 |
| | 13:50 ~ 14:40 | 양육 심화 과정 | 봉사관 지하 | 이후림 | 김호진 안집 |
| 수요일 | 13:30 ~ 14:30 | 신약숲 둘러보기 | 기념관 503호 | 전병주 | 강명옥 안집 |
| | 13:30 ~ 14:30 | 성서 지리 | 봉사관 504호 | 최한윤 | 자체운영 |
| 금요일 | 13:30 ~ 15:00 | 성경 통독 | 기념관 503호 | 채철우 | 17교구 |
| | 13:30 ~ 14:30 | 구약숲 둘러보기 | 봉사관 504호 | 김여호수아 | 자체운영 |

※ 성경통독은 2년 1독 과정으로 변경함(180분 통독 → 90분 통독) / 교구순서 반영

서로의 삶과 믿음을 채워가는 '채움' 소그룹 이야기

취재 김천경 기자



말씀으로 마음과 삶을 채우는 '채움'

'채움'은 마음과 삶을 신앙으로 채운다는 뜻으로, 구성원들이 함께 지은 이름이다. 이 공동체는 부부선교회를 졸업한 성도들이 성경 공부를 지속하며 신앙을 이어가고자 다시 모이면서 시작됐다.

2024년, 자발적으로 모인 이들은 교회의 소그룹 리더 양성 과정을 마친 리더와 함께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의 삶을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채움'을 만들어 가고 있다. 현재 일곱 가정에서 열네 명이 함께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신앙과 일상의 경험을 공유하고, 삶에서 믿음을 조금씩 채워 가는 과정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함께하며 성장해 가고 있는 '채

움'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지식이 아닌, 삶으로 채워지는 말씀

모임의 중심에는 언제나 말씀이 있다. 지난해까지는 주일예배 담임목사의 설교 말씀을 바탕으로 한 교안을 중심으로 성경공부를 해 왔다. 리더 이걸과 집사는 이렇게 말한다.

“설교 말씀은 은혜가 선명할 뿐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와 긴밀히 맞닿아 있어, 조원들과의 나눔이 늘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올해는 조원들과 함께 다양한 나눔 방식을 의논하여, 현재는 교회 소그룹용 마가복음 교안을 활용하고 있어요. 향후 별도의 성경공부 교재 사용

도 염두에 두고 있고, 교역자 초빙 및 심방 등을 통해 모임을 더욱 풍성하게 꾸려 가려고 합니다.”

말씀 인도는 특정 사람에게 고정하지 않는다. 구성원들이 돌아가며 맡는다.

“말씀을 직접 준비해 보면, 가장 큰 은혜를 받는 사람은 인도자 자신이더라고요. 조원들이 말씀 인도를 맡아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제게는 리더로서 큰 은혜이자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이들이 붙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분명하다.

“말씀을 많이 아는 공동체보다, 함께 공부한 말씀이 각자의 삶에서 실체가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서 걷기까지, 자녀까지 함께하는 교제

‘채움’의 시간은 말씀 나눔에만 머물지 않는다. 돌레길을 함께 걸으며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고, 연극을 관람하며 잠시 삶의 호흡을 늦추는 시간도 가진다. 이런 교제는 서로 더 편안하게 이해하게 하고, 모임에서 나는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도록 돕는다.

지난 12월 송년회는 공동체의 결을 잘 보여주는 시간이었다. 먹고 마시는 교제에 머무르는 송년회가 아니라 아이들까지 함께 모여 예배와 찬양을 드렸다.

“아이들이 곁에서 찬양을 따라 부르거나 조용히 예배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공동체가 한 세대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걸 느꼈어요.”

예배 후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돌아본 ‘올해의 채움’을 나누며 지나온 시간을 차분히 되짚었다.

멀어졌던 마음을 다시 부르시는 공동체

‘채움’ 안에서 삶의 변화도 조용히 일어나고 있다. 서수

영 집사는 코로나를 겪으며 공동체와 멀어졌던 시간을 떠올린다.

“그때는 삶을 나누는 일 자체가 부담이었고, 신앙도 점점 개인적인 영역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약 2년 만에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채움’은 서두르지 않았다.

“여기서는 억지로 말하라고 하지 않아요. 기다려 주며, 말로 다 설명하지 않아도 삶으로 서로를 이해해 줘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천천히 회복시키고 계신다는 걸 느껴요.”

비교 대신 방향을 묻는 나눔

‘채움’에서의 나눔은 일상 대화와 결이 다르다.

“부모로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녀의 성취나 주변 환경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돼요. 이런 대화들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비교와 부담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삶의 속도와 방향을 깊이 돌아보기에는 부족할 때도 있어요.

‘채움’에서는, ‘우리 가정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리에서 있을까?’, ‘부부로서, 부모로서 무엇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을까?’ 같은 질문으로 나눔을 이어가요. 이런 질문들을 통해 삶을 점검하게 되고, 결과보다 방향을 돌아보게 돼요. 그 과정이 우리를 조금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신중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줍니다.”

부모를 넘어, 다음세대까지 이어지는 채움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다. 이지연 집사는 아이의 변화를 통해 ‘채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전한다.

“저희 큰아이의 반응을 보면, 부모인 우리가 말할 때보다 ‘채움’에 속한 형들이 신앙 이야기를 나누며 권면할 때 확실히 달라요. ‘채움’이 어른들의 모임에서만 끝나지 않고 아이들에게도 각자의 공동체로 세워진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아이들이 그 안에서 관계를 맺고 성장하는 모습에 가슴이 벅차올라요.”

무너진 마음 위에 세워진 피난처

힘든 시기를 통과하던 이들에게 ‘채움’은 피난처였다. 이선옥 집사는 교회를 떠나고 싶을 만큼 버거웠던 시간을 떠올린다.

“삶의 문제가 한꺼번에 겹쳤을 때,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꺼낼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하지만 ‘채움’에서는 달랐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 기도가 말이 아니라 실제로 이어진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로였어요.”

시간이 지나며 상황도, 마음도 회복됐다.

“가장 큰 변화는 평안이었어요. 불안하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안정되는 걸 분명히 경험했어요.”

말씀 한 구절이 바뀌어 가는 삶의 방향

서은영 집사는 ‘채움’에서 나는 한 구절의 말씀이 삶의 방향을 바꾸었다고 고백한다.

“‘채움’에서 나는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태복음 7:21) 구절을 마음에 새기게 되었어요.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죠. 혼자였다면 깨닫지 못했을 변화를 공동체 안에

서 경험할 수 있었고, 그 경험이 제 삶과 신앙을 조금씩 바꾸고 있어요.”

지금도 진행 중인 이야기, 오늘도 채워지는 공동체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도 공동체는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

안태정 집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로마서 12:15) 말씀처럼,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래요. 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에베소서 4:13) 말씀처럼, 모든 구성원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자라 가고 싶어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자라 간다’라는 방향성이 ‘채움’의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결과 리더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다.

“작년까지는 부부선교회를 통해 선교사에게 자체 선교 헌금을 후원했지만, 올해는 ‘채움’ 자체적으로 선교 후원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말씀과 나눔을 삶으로 실천하는 연장선에서,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봉사 활동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채움’은 이미 완성된 공동체의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과 삶을 함께 채워 가는 현재진행형의 기록이다. 구성원들의 나눔과 예배의 순간은 각자의 삶 속에서 이어지며, 신앙이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자리 잡는 모습을 보여준다. 소그룹 참여를 망설이는 이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길 소망한다. **안남**

‘사랑의 김치 나누기’ 및 ‘어르신 떡국떡 나눔’ 행사 펼쳐



조명철 안수집사
종로·성북교구
사회봉사부 서기

사회봉사부(부장 정하진 장로)는 2025년 성탄절을 앞두고 12월 22일(월) 교회 마당에서 ‘사랑의 김치 나누기’ 행사를 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이날 나눈 김치는 5kg씩 포장된 1,115상자로, 김치는 중구청 및 종로구청 관내와 인근 지역의 사역 기관에 배부되어 취약 계층에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훈훈한 나눔의 장이 되었다.

사회봉사부는 이에 앞서 12월 7일과 14일 두 번의 주일에 걸쳐서 교회 내 8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3,900여 개의 ‘어르신 떡국떡 나눔’ 행사도 개최함으로써 영락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잊지 않았다.

행사를 주관한 정하진 장로는 “경기가 좋지 않고 겨울 추위로 마음마저 얼어붙어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이 도움의 손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 소외 계층에게 전해져 큰 힘과 용기가 되고, 외롭게 생활하는 독거노인과 결손 가정 구성원 등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만남**



풍성한 식탁 앞에서, 건강도 함께 새로 시작합니다



연초가 되면 우리 식탁은 갑자기 너덕
해집니다. 평소엔 보기 힘들던 전골과
전, 잡채와 고기 요리가 한자리에 모이고
달콤한 디저트까지 더해집니다.

“이건 오늘 안 먹으면 섭섭하지.”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이다 보면, 어느새 접시는 비워지고 마
음도 함께 느슨해집니다.

그리고 며칠 뒤, 체중계 위에서 우리는 조용히 한숨을 쉽니다. ‘분명 작년에도 이랬던 것
같은데...’

행복한 시간, 그리고 늘어난 체중

사실, 문제는 음식이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식사는 그 자체로 큰 기
쁨이고 감사입니다.

다만, 연말과 연초에는 활동량은 줄고, 고열량 음식은 늘고, 식사 시간이 길어지기 쉬운 시
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늘어난 체중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결과에 가깝습니다.

냉장고는 여전히 풍성한데...

명절이 지나고 냉장고 문을 열면, 여전히 전이 있고, 잡채가 있고, 고기 요리가 남아 있습니
다. 버리기엔 아깝고, 안 먹자니 눈에 밟힙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덜 먹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똑똑하게 먹는 지혜’입니다. 굶지
않아도, 버리지 않아도 열량은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권오란 권사
중구·웅산교구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명예교수

실천 tip1. “덜어내기”

같은 음식이라도 조금만 덜어내면 몸이 받아들이는 부담은 많이 줄어듭니다.

- 전이나 튀김은 키친타월 위에 잠시 올려 기름 제거하기
- 볶음 요리는 한 번 더 덜어내고 채소 곁들이기
- 남은 전은 프라이팬보다 에어프라이어로 데우기

실천 tip2. “더하기”

‘덜 먹어야지’라고 생각할수록 오히려 음식이 더 생각납니다. 대신 열량은 낮고 포만감은 높은 음식을 더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참고 있다’라는 느낌보다 ‘잘 먹고 있다’라는 만족감이 생깁니다.

- 전과 함께 샐러드나 데친 채소
- 떡이나 빵과 함께 단백질(계란, 두부, 생선)
- 식사 전 따뜻한 물 한 컵

실천 tip3. “속도 늦추기”

우리가 과식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음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너무 빨리 먹기 때문입니다. 포만감은 음식을 먹고 10~20분쯤 지나서야 뇌가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습관이 도움됩니다.

- 한 입 먹고 젓가락 내려놓기
- 씹는 횟수 조금 늘리기
- 대화하며 천천히 식사하기

실천 tip4. “움직임을 생활 속으로”

연초마다 이런 결심을 합니다. “올해는 운동해야지!” 하지만 운동을 ‘시작’하려 하면 부담부터 생깁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 설거지하며 발뒤꿈치 들기
- TV 보며 스트레칭하기
-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한 층 오르기
- 식사 후 10분 걷기

건강은 새해 목표가 아니라, 새해를 살아갈 힘입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신앙, 봉사, 관계, 일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 모든 계획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결국 몸입니다. 그러니, 건강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을 끝까지 잘 살아가기 위한 지혜로운 책임입니다.

연말·연초 음식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 기쁨은 충분히 감사할 만합니다. 이제 새해에는 그 즐거움 위에 지혜를 한 스푼 더하면 됩니다. 새해에는 우리 식탁에도, 우리 몸에도 절제와 감사가 함께 머물기를 소망해 봅니다. **만남**



낮은 곳에 임한 은혜의 빛, 반 고흐의 <감자 먹는 사람들>과 <밤의 카페>



서성록 명예교수
안동대학교

몇 해 전 암스테르담의 반 고흐 미술관을 방문했을 때였다. 국내에서 입장권을 구매하려고 했으나 몇 달치 예매가 마감되어 실패하고, 현지에서도 구매가 어려워 난감해하던 중 직원의 도움으로 겨우 입장권을 구해 미술관에 들어설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필자는 반 고흐를 향한 전 세계 애호가들의 폭발적인 애정과 관심을 실감했다. 사후에 그의 명성은 하늘로 치솟았으나, 정작 그에 관한 진실은 오해와 낭설의 짙은 베일 아래 가려져 있다.

『빈센트 반 고흐: 기독교와 자연』의 저자 츠카사 고테라(Tsukasa Kodera)는 반 고흐의 삶을 크게 두 시기로 분류했는데, 초기 절반은 광적인 신앙에 빠졌던 시기로, 나머지 절반은 기독교를 완전히 저버리고 자연신학을 택한 시기로 나누었다. 그러나 이러한 생애 이분법은 사실과 다르다. 반 고흐는 여러 편지에서 신앙을 수차례 고백했으며, <씨 뿌리는 사람>(마태복음 13장) 같은 그림을 통해서도 고통받는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표현했다. 그의 작업이 단순히 농촌 생활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 글에서는 고테라의 주장을 반박하고, 반 고흐의 전기작 <감자 먹는 사람들>과 후기작 <밤의 카페>를 분석해 그의 신앙적 연속성을 살펴볼 것이다. 반 고흐에게 예술은 기독교 신앙을 대체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조형 언어를 통해 소명 의식을 실현하는 통로였음을 입증하려 한다.

농가에 임한 은혜: <감자 먹는 사람들> (1885)

<감자 먹는 사람들>(Potato Eaters, 1885)은 반 고흐가 평생 자랑스러워한 작품 중 하나였다. 화면에는 농부 가족이 조출한 저녁 식사를 함께한다. 그들은 두툼한 옷을 껴입은 채 식탁에 둘러앉아 커피와 감자를 먹고 있다. 언뜻 보기에도 한기가 느껴질 정도이며 그들의 얼굴에는 밭고랑 같은 주름이 새겨져 있다.

반 고흐는 농부를 단순한 관찰 대상이 아닌, 삶의 방식을 깊이 이해해야 할 존재로 여



반 고흐, 감자 먹는 사람들, 캔버스에 유채, 82 x 114cm, 1885, 반 고흐 미술관 소장

졌다. 그는 편지에서 “나는 램프의 불빛 아래 감자를 먹는 이들이 접시의 감자를 먹는 바로 그 손으로 대지를 팠음을 보여주려 했어. 따라서 그 그림은 손노동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들이 양식을 정직하게 얻었음을 나타내는 것이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농부나 직조공처럼 눈에 잘 띄지 않는 이들의 묵묵한 삶 속에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여겼다.

하지만 동료 화가 반 라파르트(Anthon van Rappard)는 이 작품을 비판했다. 반 고흐는 자기 입장을 해명할 필요를 느꼈다. 반 고흐는 라파르트에게 보낸 편지에서 “형태를 정확히 포착하는 것은 별것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보다는 ‘실재’를 끄집어내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반 고흐는 화려한 수사로 가득 찬 작품보다 교감할 수 있는 진솔한 작품으로 보이기를 원했다. 반 고흐는 “농촌이나 민중 생활을 그리는 것이 ... 파리에서 이국적인 하렘이나 추기경의 연회를 그리는

사람보다 더 나은 길”이라고 여겼다.

메이어 샤피로(Meyer Schapiro)는 이 작품을 보고 “식탁은 그들의 제단이요, 빵은 그들이 농사지어 얻은 성례물이다.”라고 했으며, 로버트 로젠블룸(Robert Rosenblum)은 ‘예배를 보는 듯한 엄숙함’이 흐른다고 풀이했다. 캐슬린 에릭슨(Kathleen Erickson)은 “가장 평범한 일에서 ... 더욱 큰 감동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전한다.”고 했다. 이들은 공통으로 이 그림이 종교적 도상을 취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심오한 종교성을 간직한 것으로 해석했다.

〈감자 먹는 사람들〉에서 천장의 ‘불빛’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바로 지친 농부들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호롱불이다. 반 고흐는 천장에 달려 있어야 할 불을 의도적으로 낮게 위치시켰다. 이를 통해 반 고흐는 “그리스도가 가정, 그것도 식탁 주위에,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 게다가 가장 일상적인 순간에 임재하심”(Skye

Jethani)을 보여주었다. 불빛은 일상 공간을 거룩한 공간으로 바꾸는 구실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가 존경했던 렘브란트가 어두운 배경 속에서 밝은 빛을 대조해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냈듯이, 키아로스쿠로(Chiaroscuro)의 구사가 여기서도 활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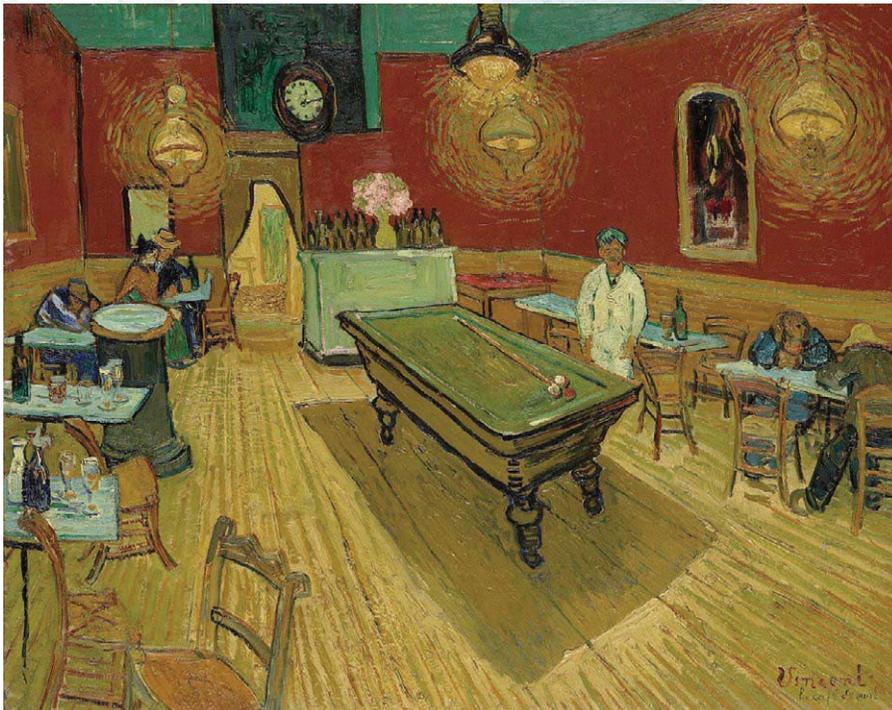
그림에서 빛 안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 빛의 존재로 그들은 은혜와 위로를 얻고 있다. 감자로는 육신의 양식을 섭취하지만, 빛으로는 생명의 양식을 섭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불빛이 비친다는 것은 곧 '빛 안에서 빛을 보는 것'을 의미한다. 반 고흐가 그린 빛은 이성 혹은 지성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계시로서 갈급한 심령들에 선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

총이었다. 기독교 역사에서 늘 신비의 베일 속에 감추어져 왔던 진실이 바로 <감자 먹는 사람들> 속에 담겨 있는 것이다.

카페에 임한 은혜: <밤의 카페> (1888)

낮은 곳에 임한 은혜는 아를에 머물던 시기에 제작한 <밤의 카페>(1888)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 카페는 '밤의 유랑자들이 밤의 유랑을 마무리하는 곳'(베르나르에게 보낸 편지)이었다.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 테이블에는 술잔과 술병이 텅굴고 취객의 모습도 눈에 띈다.

반 고흐가 이곳을 택한 것은 삶의 명암이 교차하는



빈센트 반 고흐
 밤의 카페, 캔버스에 유채
 72.4 x 92.1cm, 1888,
 예일대학교 아트갤러리 소장

공간이기 때문이었으리라. 반 고흐는 빨강과 초록의 불길한 대비를 통해 카페가 가진 영혼의 위험성을 고발하는 한편, 이 어둠 위에 노란 후광(halo)의 빛을 드리워 구원의 비가시적인 요소를 투사했다. 이는 반 고흐가 ‘자연신학’을 택해 기독교를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색채 언어를 통해 절망적인 세속 공간 속에 기독교적 구원의 메시지를 창의적으로 구현했음을 보여준다.

그는 카페 그림을 그리기 바로 전날 동생 테오에게 “그림으로 음악처럼 위안이 되는 것을 말하고”, “실제적인 광선과 색채의 파장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 옛날에 후광이 상징하던 것과 우리가 찾던 남자와 여자를 그리고 싶다.”(편지 531)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래서일까. ‘실제적인 광선과 색채의 파장’은 천장과 벽, 그리고 바닥에 반사되는 빛을 발산하여 화면 전체를 에워싸고 있다.

다시 한번 막다른 길에 처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의 따뜻한 시선이 나타난다. 그림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바닥이나 테이블이 아니라 천장에 달린 가스 등이다. 칙칙한 공간을 비추는 불빛이야말로 반 고흐가 강조하려고 했던 핵심적 부분이다. 더욱이 작가는 가스 등을 한 군데만 비추게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모여 있는 곳마다 그들을 밝게 비추게 했다.

이는 인공적인 빛이 단순한 색채 실험이 아니라 위험한 공간 속에 ‘위로와 후광’을 의도적으로 투사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따라서 그 빛은 방 안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한 번의 자비와 위로를 골고루 비추며, 이는 <감자 먹는 사람들>에게서 보았던 농부들에게 임했던 ‘은총의 불빛’이고 ‘구원의 불빛’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신앙의 새로운 통로가 된 예술

츠카사 고데라는 반 고흐의 인생 절반은 광적인 신앙으로, 나머지 절반은 신앙을 저버린 시기로 나누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명백한 오류다. 고데라는 반 고흐가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자연을 통해 신을 찾는 ‘자연신학’을 택했다고 주장했지만, <감자 먹는 사람들>의 ‘노동의 신성함’이나 <밤의 카페>의 ‘인간 구원’의 의미는 단순한 자연신학을 넘어 기독교적 사랑과 구원의 실천이라는 강한 윤리적, 사회적 신념을 담고 있다.

반 고흐가 기독교 신앙을 떠났다고 보는 관점은 한때 널리 통용되었으나, 최근의 연구들은 그에 관한 오해들을 하나둘씩 걷어내고, 그가 예술가로 활동한 이후에도 소명 의식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있다.

실제로 젊은 시절 목사가 되고자 했으나 실패했던 반 고흐는 성직자의 길 대신 ‘예술을 통한 봉사’라는 형태로 자신의 소명을 이어갔다. 그는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정으로 실천하는 것은 고난받는 인간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1879년 8월)이라고 끊임없이 강조했다.

<감자 먹는 사람들>과 <밤의 카페>에서 보듯이, 그는 사회 변방에 있는 사람들의 벗이 되고자 했다. 그에게 그림이란 곧 ‘사랑의 신비’를 세상에 전하는 편지였다. 그렇기에 그가 붓으로 그린 것은 단순한 빛이 아니라, 어둠 속에 머무는 이들에게 드리워진 하나님의 은총이었으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그리스도 사랑의 표식이었다. **만남**

영락시어터 2월 상영 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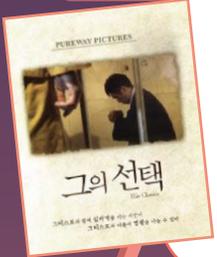
(50주년기념관 B1 소강당, 주일 오후 2시)

그의 선택 (His Choice, 2007) **ALL** 1시간 40분

1일

감독: 권순도 출연: 최범호, 오한나 특별출연: 권오중

1936년 마산, 평양의 독립운동가 조만식 장로는 주기철 목사를 찾아가 주 목사의 평양행을 간곡히 설득한다. 주 목사는 안락한 삶을 뒤로하고 평양 산정현교회에 부임한다. 그즈음 평양노회는 “신사참배는 종교적 행위가 아닌 국가적 행위로 본다.”라는 성명을 발표한다. 주 목사는 이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한다.



형 (My Annoying Brother, 2016) **12** 1시간 50분

8일

감독: 권수경 출연: 조정석, 도경수, 박신혜 외

“살다 보니까 네가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날이 온다?” 뻔뻔한 사기꾼, 동생 핑계로 가석방의 기회를 몰았다! 유도 국가대표 고두영은 경기 도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되고, 이 소식을 들은 사기전과 10범의 형 고두식은 눈물의 석방 사기극을 펼친다! 하루아침에 앞이 캄캄해진 동생을 핑계로 1년간 보호자 자격으로 가석방된 두식은 두영의 삶을 더 엉망진창으로 만드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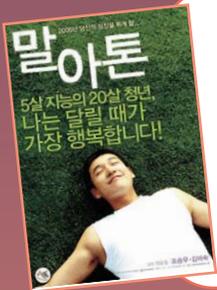


말아톤 (Marathon, 2005) **15** 1시간 55분

15일

감독: 정윤철 출연: 조승우, 김미숙

초코파이와 얼룩말을 좋아하는 초원은 20살의 청년이지만 지능은 5살 수준의 자폐아다. 엄마 경숙은 초원이 좋아하는 달리기에서만큼은 남다른 소질과 잠재력이 있음을 발견하고 달리기 훈련을 시킨다. 그러나 훈련이 진행됨에 따라, 경숙은 이 훈련이 초원을 위한 것인지, 자기 욕심을 위한 것인지를 갈등하게 된다. 이에 42.195km를 3시간 이내에 완주하는 '서브스리' 달성 목표를 포기하게 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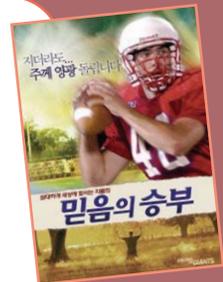


믿음의 승부 (Facing the Giants, 2006) **ALL** 1시간 52분

22일

감독: 알렉스 캔드릭 출연: 알렉스 캔드릭, 제임스 블랙웰, 베일리 케이브, 짐 맥브라이드

사일로 기독교학교의 미식축구팀 감독 테일러는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성적은 늘 부진하고 새 시즌이 시작되자 에이스 선수는 전학을 가버렸다. 해임 위기에 놓인 감독은 벼랑 끝에 서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 이기든 지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목적을 새로 한 미식축구 팀은 매 순간 최선을 다하기 시작하고 이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데...



2025 전 세대가 함께하는 성탄예배

01



지난해 12월 25일(목) 1부(오전 7시), 2부(오전 9시 30분), 3부(오전 11시 30분)에 구세주 탄생을 경배하는 성탄축하예배를 드렸다. 특별히 2, 3부예배는 예수 탄생의 기쁨과 은혜를 전 세대가 함께 나누고자, 교회학교 어린이와 학생이 예배 순서에 참여해 성탄축하예배

로 드렸다.

예배는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하여 2부 사랑부 어린이, 3부는 유년부 어린이가 촛불 점화와 성경 낭독을 담당했고, 3세대 기도 순서에는 2부 고등부 장준익 가정, 3부 초등부 박하준 가정에서 3대가 나와 기도했다.

봉헌송 순서에는 2부 중등부, 3부 유치부 어린이가 찬양과 율동으로 성도들에게 귀여움과 즐거움을 전했다.

김운성 담임목사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성탄절이 되길 바란다며 성탄의 메시지를 전했다. '평안과 구원의 크리스마스'(누가복음 2:28~33)라는 제목으로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과 낮아짐, 경배의 의미를 강조하며 주님 향한 사랑과 경배가 변치 않길 권면했다. 구원자, 생명과 빛, 영광으로 오신 아기 예수의 의롭고 경건한 정결 예식을 예로 들며, "아기 예수 얼굴의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다. 참사랑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셨다."라고 성탄 메시지를 선포했다.

성탄절 전야에 울려 퍼진 성탄음악회

02

성탄절 전야 수요일 기도회 시 베다니홀에서 성탄음악예배가 '크리스마스 송가'를 주제로 열렸다. 베다니찬양대 주관으로 백승현 안수집사의 지휘, 찬양대의 '헨델의 메시아' 합창곡과 솔로 연주곡 메조소프라노 김미경, 테너 양인준, 오르간 반주 한은미, 호산나 오케스트라가 협연하여 찬양곡과 캐럴, 내레이션으로 구성되어 아기 예수 탄생을 찬양하며 감동을 전했다.

취재 김경옥 기자





03

2026년 신년예배·신년기도회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교회’를 외치며

신년예배

표어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교회」(로마서 1:16~17)를 선포하며, 2026년 1월 1일(목), 본당에서 신년 첫 예배를 드렸다. 이날 김운성 담임목사는 ‘알파이신 하나님’(출애굽기 12:37~42)을 제목으로 “우리의 2026년을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기념비적인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를 위해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할 것”이라고 권면했다.

이날 예배는 1부, 2부로 드렸으며, 2부예배에서는 임직식이 거행됐다. 신임권사 53명, 서리 남자 집사 89명, 서리 여자 집사 143명이 2026년 첫 직분을 맡았고, 구역장 1,073명, 교사

800여 명, 찬양대원 1,101명의 직분자와 함께 맡은 바 충성을 다하기로 다짐했고, 성도들은 격려의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신년기도회

1월 1일 오전 신년예배에 이어, 오후 7시 저녁예배를 시작으로, 2일(금), 3일(토)까지 2박 3일의 신년기도회가 진행됐다. 이 기간에 새벽예배와 오전예배, 저녁예배를 포함해 총 7회를 드렸으며, 새벽예배와 오전예배에서는 부목사들이 귀한 말씀을 전했다. 특별히 김운성 담임목사는 3일간의 저녁예배를 통해, “새해를 맞아 광야 같은 세

상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동행하시는지”를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다.

첫째 날은 ‘길 떠나는 사람들’(출애굽기 13:10~22), 둘째 날은 ‘길 한복판에서’(요한계시록 2:1~7), 셋째 날은 ‘오메가이신 하나님’(창세기 12:1~5)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신년예배와 신년기도회를 통해 ‘알파이신 하나님’과 ‘오메가이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목적지까지 성공적으로 도착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우리도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품에 안기는 승리를 거두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신년기도회에는 대면과 온라인을 포함해 총 35,430명의 성도가 참여했다. 귀한 말씀과 식사 제공으로 영과 육의 양식이 풍성히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며, 시무장로들의 배식 봉사를 통한 섬김이 더해져 더욱 빛나는 2026년의 희망찬 미래를 볼 수 있었다.

취재 이재향 기자



04

첫 달 기도드림 특별금요기도회 '새해를 향한 믿음의 결단'을 하며

2026년에도 첫 달 기도드림의 달이 이어졌다. 특별금요기도회는 1월 9일부터 23일까지 매주 금요일 3주간 오후 7시 30분 본당에서 열렸다. 매회 기도회는 금요찬양팀의 찬양으로 시작하여 9일에는 배요한 목사(신일교회)가 '막막한 길, 하나님의 인도하심

으로!'(창세기 24:1~9)라는 제목으로, 16일에는 김춘곤 목사(구파발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누가복음 18:1~8)을, 23일에는 권오규 목사(계산제일교회)가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십시오' (마가복음 9:14~29)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번 기도회는 새해 첫 주에 드렸던 신년기도회에 이어, 성도들이 새해의 첫 걸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영적으로 더욱 깊어지는 은혜의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본당을 가득 메운 성도들은 말씀을 따라 조용히 마음을 모으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새해를 향한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 각자의 자리에서 눈물로 중보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은 경건하면서도 뜨거운 기도의 분위기를 잘 보여주었다.

특별히 기도회 기간 동안 목양부에서는 유아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어린 자녀 돌봄반을 50주년기념관 2층에서 운영해, 자녀를 둔 30·40세대 성도들이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우며 참여를 독려했다.

취재 김천경 기자

2026 제직회

서기



이형일 안수집사

부서기



이재순 권사



신임권사 임직식 및 권사헌신예배

“기도의 동력이 되겠습니다”

1월 11일 주일 찬양예배 중 신임권사 53명의 임직식이 거행됐다. 오정선 권사회 회장의 인도와 양혜성 권사의 기도로 이어졌으며, 탁현수 목사는 ‘그리스도인’(사도행전 11:25~26)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에 속한 자요,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권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설교했다.

이어 김운성 담임목사의 축복기도 후, 신임권사 53명이 기립해 오른손을 들고 서약하는 임직식이 진행됐다. 이

05

후 영상으로 지난해 권사회 사역을 소개한 뒤, 오정선 권사회 회장이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개척 교회 정신으로 영적 도약을 바라며 한국 교회와 영락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담임목사님의 목회사역 위에 우리 권사회가 기도의 동력이 되자.”라며 환영사와 한 해 소망을 전했다. 이에 장우연 신임권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일꾼이 되어 조용히 헌신하겠습니다.”라고 답사했다. 이어 김경숙 권사(서울노회여전도회연합회 회장)가 신임권사 대표에게 기념품을 전달했다. 이날 예배는 권사회찬양대의 특송 ‘주와 함께 가리다’ 그리고 ‘권사회기’를 제창한 후, 축도로 마쳤다.

여전도회 헌신예배

“다 함께 하나님 영광에 참여합시다”

2026년 여전도회 헌신예배가 1월 18일 주일 본당에서 찬양예배 시 드러졌다. 헌신예배는 제1,2,3,4여전도회 증경 회장단, 임원 및 실행위원들이 참석했고, 이은혜 권사(제1여전도회회장)의 인도로 현승하 권사(제2여전도회회장)의 기도, 강주희 집사(제4여전도회회장)의 성경봉독으로 이어졌다. 이날 초청 강사 김창근 원로목사(무학교회)의 ‘영광

06



에 참여할 자’(베드로전서 4:7~11)라는 말씀을 통해 “기도와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낮아져서 모두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했다.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선교사역에 쓰일 봉헌의 시간에는 여전도회 연합

찬양대의 봉헌송과 박우경 권사(제3여전도회회장)의 봉헌기도가 있었다. 이어 지난해 각 1,2,3,4여전도회 중점 선교사역 활동을 담은 영상을 통해 사역 보고 후, 새롭게 헌신하기를 결단하며 여전도회기와 축도로 마쳤다.

2025년 제직 은퇴식, 장로 8명 외 제직 315명 은퇴

지난해 마지막 주일인 12월 28일 주일 찬양예배 중 은퇴예식이 거행됐다. 이날 예식에서는 김운성 담임목사가 그동안의 헌신과 수고에 감사 말씀을 전한 후, 장로 8명과 안수집사 8명에게 공로패와 감사장을 수여했다(관련 사진은



『만남』 1월호 58면 게재). 이번 은퇴예식은 교회법상 '시무 정년 70세' 교회법에 따라 진행됐으며, 권사 167명, 남

자 집사 90명, 여자 집사 58명으로 총 323명이 은퇴했다.

취재 김경옥 기자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전도부 전도훈련학교 | 2026년 상반기 훈련생 모집공고

[신청방법]

- ▷ 온라인모집: 온라인양식, QR코드, 영락교회 홈페이지
- ▷ 현장모집: 2월 15일 ~ 3월 1일(3주간) 배다니 광장
- ▷ 문의: 나의전도학교 010 - 3269 - 5382
화요전도폭발 010 - 3354 - 3835
토요전도폭발 010 - 7194 - 1566

▷ QR 신청



전도폭발



나의 전도학교

1. 나의 전도학교

- 훈련기간: 3월 8일(개강) ~ 3월 29일(수료), 4주간
- 훈련시간: 매주일 오전 10시 50분 ~ 12시 30분
- 훈련장소: 보아스빌딩 2층(중부경찰서 앞)

2. 전도폭발훈련 하요팀

- 훈련기간: 3월 10일(개강) ~ 6월 9일(수료), 13주간
- 훈련시간: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20분 ~ 12시 40분
- 훈련장소: 영락교회 50주년 기념관 4층

3. 전도폭발훈련 토요일

- 훈련기간: 3월 7일(개강) ~ 5월 30일(수료), 13주간
- 훈련시간: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50분 ~ 4시 30분
- 훈련장소: 영락교회 봉사관 지하 1층 예배실



성전의 박사들 사이의 예수

Christ among the Doctors
in the Temple
1560년대

파올로 베로네세
Paolo Veronese
1528~1588

열두 살 시절의 예수

이탈리아 후기 르네상스 시대의 베네치아 화가인 파올로 베로네세의 작품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52절의 내용이 배경인 이 그림은 마리아와 요셉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당시 열두 살이던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의 일화입니다.

화면 중앙의 예수님 발 아래 근처에 작게 그려진 요셉과 마리아가 잃었던 예수를 성전에서 발견한 모습이 보입니다. 반면에 높은 위치에 앉아 있는 예수는 율법학자들(박사들) 사이에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합니다. 그리고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는 모습이 다양하게 보입니다.

어린 예수의 얼굴에 빛을 집중시켜 예수님이 단순히 소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의 특별한 지식과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복음사역이 군중 앞에서 시작됨을 예고하는 상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은혜 권사 _ 성동·광진교구

2026년 2월호 통권 622호

발행 2026. 2. 1.

발행인 김운성 / 지도목사 박지운 / 편집인 김주현 / 편집장 김성문

편집위원 이신일 김정훈 김기선 박선이

기자 김경옥 / 박진현 이재향 이현지 인 미 최윤미 / 김천경 승윤영 이나영

사진기자 박홍기 원종석 유승헌

교열 김응기 이광미 조한아 김현중

발행처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주소 04552 서울시 중구 수표로 33 / 전화 02)2280-0114(대)

홈페이지 <http://www.youngnak.net/> / 디자인 design 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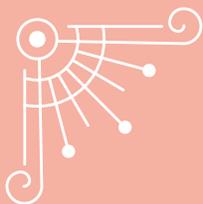


월간 「만남」 e-Book

표지설명



차가운 눈과 얼음 속에서도 붉은 꽃봉오리가 조용히 피어날 준비를 합니다. 겨울의 끝자락에도 주님은 얼어붙은 마음에 봄을 향한 소망의 싹을 틔우십니다. 영락 성도님들 모두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새로운 봄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새아기·새가정... 은혜의 여정 함께합니다



2025년 12월

※ 교회 홈페이지 게재 기준



군입대 1 이준서



새아기 2 김담(김동희, 박채원 가정)
3 김유하(김종한, 이민지 가정)
4 이윤아(이상호, 강문희 가정)



성전의 박사들 사이의 예수 Christ among the Doctors in the Temple

파올로 베로네세(Paolo Veronese)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누가복음 2:48)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누가복음 2:49)